

Jthink 2011-JU-53

한미 FTA 대응 전라북도 산업별 연구 - 식품가공산업 -

2012. 4.



연구진

연구책임 김재구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최성환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연구자문 김수동 •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센터 연구위원
 신정규 • 전주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박우성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략기획팀 선임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11JU5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3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일반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방법	7
3.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9
제 3 절 연구의 체계	9
제2장 한미 FTA 및 국내외 식품가공산업 현황	13
제1절 FTA 개요	13
제2절 한미 FTA 추진과정 및 내용	17
제3절 국내외 식품가공산업 현황	29
1. 세계식품산업 규모	29
2. 국내 식품산업 현황	31
3. 전라북도 식품산업 현황	3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48
제3장 한미 FTA가 전북 식품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53
제 1 절 우리나라 식품산업 수출입 구조	53
1. 국내산업의 무역구조	53
2. 우리나라 식품산업 수출·입 현황	55
제 2 절 전라북도 식품산업 수출입 구조	68
1. 전라북도 무역구조	68
2. 전라북도 식품산업 수출·입 현황	72
제 3 절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수출경쟁력	84

제 4 절 요약	86
제4장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91
제1절 한미 FTA에 따른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SWOT 분석	91
1. 식품가공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및 전망	91
2. 한미 FTA에 따른 식품가공산업 전망	91
3.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전북 식품가공산업 SWOT 분석	94
제2절 대미 먹거리 수출 전략 및 유망 품목(KITA, 2011)	94
제3절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농림수산식품부, 2011)	98
1.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98
2.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100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102
4.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103
제4절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105
1. 식품가공산업의 국제 경제력 제고를 위한 방향	105
2.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수출지원 전략	107
제 5 장 연구종합 및 정책 제언	115
제 1 절 연구종합	115
제 2 절 정책 제언	122
1. 전북 식품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22
2. 한미 FTA 대응 전북 식품가공산업 육성 세부추진 전략	122
3. 연구의 한계	125

표 목 차

〈표 1-1〉 2011년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4
〈표 2-1〉 지역무역협정(RTA) 현황 (2011년 7월 현재)	13
〈표 2-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13
〈표 2-3〉 한·미 FTA 추진 경과	18
〈표 2-4〉 주요국의 교역규모 및 외국인직접투자	20
〈표 2-5〉 한·미 FTA의 상품분과 양허결과	25
〈표 2-6〉 한·미 FTA의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26
〈표 2-7〉 미소기준 적용제외 품목	28
〈표 2-8〉 세계 식품시장 규모 및 전망	29
〈표 2-9〉 2009년도 국가별 식품 교역액 순위	30
〈표 2-10〉 국내 식품산업 시장규모	31
〈표 2-11〉 지역별 식품산업 매출액 현황	32
〈표 2-12〉 한국의 식품산업 사업체수 현황(단위: 개,%)	33
〈표 2-13〉 한국의 식품산업 종사자수 현황(단위: 명,%)	34
〈표 2-14〉 한국의 식품산업 부가가치 현황(단위: 백만원,%)	35
〈표 2-15〉 제조업 업종별 구성	37
〈표 2-16〉 시군별 기업규모별 제조업 및 음식료품업 현황	38
〈표 2-17〉 전라북도의 식품산업 사업체수 현황(단위: 개,%)	40
〈표 2-18〉 전라북도의 식품산업 종사자수 현황(단위: 명,%)	41
〈표 2-19〉 전라북도의 식품산업 부가가치 현황(단위: 백만원,%)	42
〈표 2-20〉 시·군별 식품산업 사업체수 현황(단위: 개,%)	43
〈표 2-21〉 시·군별 식품산업 종사자수 현황(단위: 개,%)	45
〈표 3-1〉 한국의 對 세계 무역수지	53
〈표 3-2〉 한국의 對 미국 무역수지	54
〈표 3-3〉 한국의 총 수출액 중 對 미국 수·출입 비중	54
〈표 3-4〉 식품제품 품목분류	56

〈표 3-5〉 한국 식품산업 총 수출액(단위:천\$, %)	58
〈표 3-6〉 한국 식품산업 對미 수출액(단위:천\$, %)	59
〈표 3-7〉 한·미 FTA 협정대상 식품산업 對미 수출액(단위:천\$, %)	60
〈표 3-8〉 한국 협정대상 식품제품의 각 품목별 비중 및 비중차(단위:%, %p)	61
〈표 3-9〉 한국 식품산업 총 수입액(단위:천\$, %)	63
〈표 3-10〉 한국 식품산업 對미 수입액(단위:천\$, %)	64
〈표 3-11〉 한·미 FTA 협정대상 식품산업 對미 수입액(단위:천\$, %)	65
〈표 3-12〉 한국 협정대상 식품제품의 각 품목별 비중 및 비중차(단위:%, %p)	66
〈표 3-13〉 전라북도의 무역수지	68
〈표 3-14〉 전라북도의 對 미국 무역수지	69
〈표 3-15〉 전라북도의 총 수출액 중 對 미국 수·출입 비중	69
〈표 3-16〉 한국 수출액 중 전라북도의 수출액 비중	70
〈표 3-17〉 전라북도 주요 수출기업의 수출액 분포	71
〈표 3-18〉 전라북도 식품산업 총 수출액(단위:천\$, %)	72
〈표 3-19〉 전라북도 식품산업 對미 수출액(단위:천\$, %)	74
〈표 3-20〉 전라북도 식품산업 對미 수출액(단위:천\$, %)	75
〈표 3-21〉 한국 협정대상 식품제품의 각 품목별 비중 및 비중차(단위:%, %p)	76
〈표 3-22〉 전북 식품산업 총 수입액(단위:천\$, %)	78
〈표 3-23〉 전라북도 식품산업 對미 수입액(단위:천\$, %)	79
〈표 3-24〉 전북 식품산업 협정대상 품목 對미 수입액(단위:천\$, %)	81
〈표 3-25〉 전북 협정대상 식품제품의 각 품목별 비중 및 비중차(단위:%, %p)	82
〈표 4-1〉 대미 먹거리 수출 전략품목	96
〈표 4-2〉 대미 먹거리 수출 유망품목	97
〈표 5-1〉 2011년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116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	8
〈그림 1-2〉 연구의 체계	10
〈그림 2-1〉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 수 변화 추이	15
〈그림 2-2〉 한국의 총수출, 對미 및 對중국 비중	22
〈그림 2-3〉 한국제조업의 對중국 투자	22
〈그림 2-4〉 미국의 주요교역국과의 수출입 및 수지(2006)	24
〈그림 2-5〉 분야별 매출액	29
〈그림 2-6〉 식품시장 규모	29
〈그림 2-7〉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도	47
〈그림 3-1〉 한국-미국 협정대상 품목 수출 비중차	62
〈그림 3-2〉 한국-미국 협정대상 품목의 연평균 증가율에 대한 비중차의 분산	62
〈그림 3-3〉 한국-미국 협정대상 품목 수입 비중차	67
〈그림 3-4〉 한국-미국 협정대상 품목의 연평균 증가율에 대한 비중차의 분산	67
〈그림 3-5〉 전북-미국 협정대상 품목 수출 비중차	77
〈그림 3-6〉 전북-미국 협정대상 품목의 연평균 증가율에 대한 비중차의 분산	77
〈그림 3-7〉 전라북도-미국 협정대상 식품품목의 비중차	83
〈그림 3-8〉 한국-미국 협정대상 품목의 연평균 증가율에 대한 비중차의 분산	83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3절 연구체계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일반배경

-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속하며, 한국경제에서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 그리고 최근에는 FTA로 대변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술을 앞세운 선진국과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개도국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심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수출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다른 경쟁국들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
- FTA(Free Trade Agreement)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임.
- 상대국이 부당한 무역조치를 취할 때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호혜적인 교역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 2011년 현재 한국은 45개국과 8건의 FTA 발효,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 진행, 17개국과 10건의 FTA 협상 준비 및 공동 연구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규모는 2010년 기준 8,915억 달러로 세계 9위에 있으며, 향후 FTA는 당사국 간에 무역장벽을 철폐해 무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비중이 85%에 달하는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EFTA, EU, 미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또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GCC와는 협상 중에 있음.
- 특히 최근 FTA가 발효된 EU는 27개국 5억여 명의 소비자, GDP 규모 16조 달러(2010년 기준)의 거대한 시장이며, 미국은 GDP 규모 15조 달러(2010년 기준)의 세계 1위 경제대국임. 즉, 우리나라는 세계 50%의 경제규모(EU, 미국)를 가진 국가와의 FTA로 인하여 세계 2, 3위의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관계에서 선점을 차지하였음.

<표 1-1> 2011년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발효 (8건, 45개국)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27개국), 페루, 미국
협상진행 (7건, 12개국)	캐나다, GCC(6개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10건, 17개국)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6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자료: 외교통상부(www.fta.go.kr)

-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미국과 함께 G2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를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FTA를 활용한 기회 선점 및 편승을 통해 FTA 허브국가로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식품가공산업도 원재료 수입가격 하락과 수출품의 관세인하 등으로 영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경우, FTA에 따른 원재료 수입가격 인하

에 따라 식품가공산업의 경우 1차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에 있어서도 관세인하에 따른 2차적 가격경쟁력을 확보 가능함.

- 반면에 다양한 외국의 가공식품들이 국내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지면서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전북의 먹을거리와 이를 이용한 식품가공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해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인 식품산업, 그 중에서도 식품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FTA에 대응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를 통해 FTA에 따른 지역산업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전라북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인 식품산업(식품가공산업)이 한미 FTA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 대한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의 대응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기준년도는 자료구득 상의 가능범위를 고려하여 2010년으로 설정함.

2)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광역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지역으로 한정함.
- 또한 본 연구는 한미 FTA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제교역에 있어서 주요 대상국을 미국을 중심으로 제시됨.

3)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자료구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 내 식품산업 중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가공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
- 왜냐하면, 수출입 등에 있어 보관 및 운송에 있어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의 규모가 크며, FTA 체결 등 교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부가가치화된 가공식품의 시장범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식품가공산업은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특성을 살려 보다 맛있고 먹기 편한 것으로 변형시키는 동시에 저장성을 좋게

하기 위한 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음.

4) 연구 내용

- 식품가공산업분야 관련 한미 FTA 체결 상황.
- 국내 및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현황.
- 한미 FTA에 따른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의 경쟁력 변화.
-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제언.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통계조사

- FTA 및 식품가공산업 관련 문헌 및 제도 검토.
- FTA 및 식품가공산업 동향 분석.
- 식품가공산업 및 교역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

2) 통계 및 SWOT 분석

-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의 수출입 특성.
-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의 무역경쟁력 분석.
- FTA에 따른 정성적 영향 분석.

3) 전문가 자문회의

○ 도내·외 FTA 및 식품가공산업 전문가 자문회의.

구분	주요내용	연구방법
현황 파악	국내외 식품가공산업 현황	국내·외 식품가공산업 현황 조사 식품가공산업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
정책동향 검토	한미 FTA 추진 과정	한미 FTA 추진과정 및 내용 검토 한미 FTA에 있어 식품가공산업 내용 검토 자문회의
통계분석	데이터 수집 지표 설정	식품가공산업 수출입 비중 분석 식품가공산업 수출경쟁력 분석
대응방안 모색	정책방향 설정	전북 식품가공산업의 SWOT 분석 한미 FTA에 따른 정성적 영향 분석
정책방향 제시	결론 및 정책방향 제시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세부전략 수립 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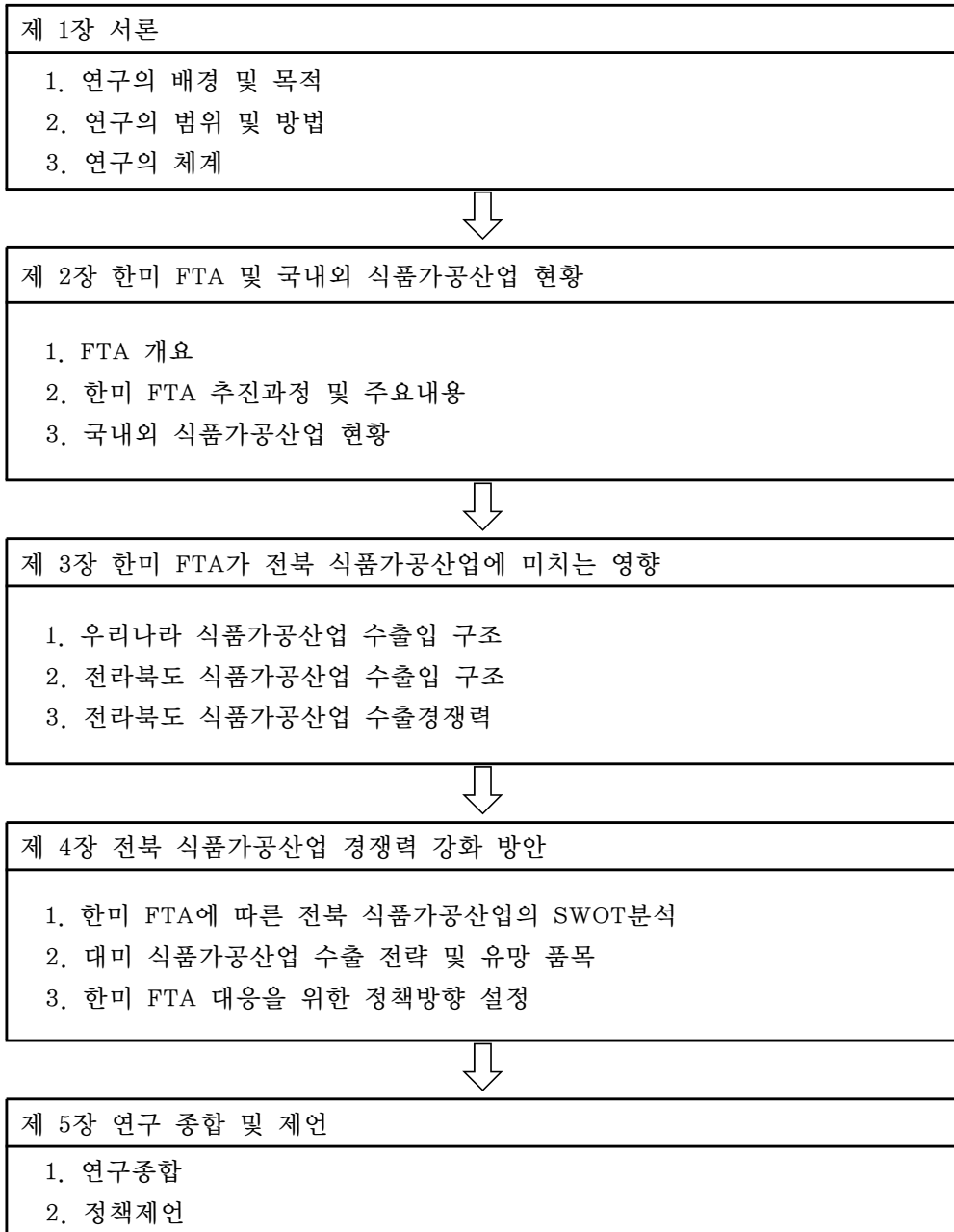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한미 FTA가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 가능.
- 한미 FTA에 대응하여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향후 한중, 한호주 등 협상진행 중이거나 준비중인 FTA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가능.

제 3 절 연구의 체계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총 5장 14절로 구성됨.
-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FTA의 개요와 함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한미 FTA의 추진과정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의 식품가공산업의 현황에 대하여 제시하게 됨
-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한미 FTA가 전북 식품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의 수출입구조를 분석하고,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여 제시함
- 제4장에서는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미 FTA에 따른 전북 식품가공산업의 SWOT 분석을 실시하고, 대미 식품가공산업 수출 전략 및 유망품목에 대하여 살펴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게 됨
-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를 종합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함



(그림 1-2) 연구의 체계

제 2 장



한미 FTA 및 국내 식품가공산업 현황

- 제 1 절 한미 FTA 체결 개요
- 제 2 절 한미 FTA의 식품가공산업 분야 관련 내용
- 제 3 절 국내외 식품가공산업 현황
- 제 4 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장 한미 FTA 및 국내 식품가공산업 현황

제1절 FTA 개요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

<표 2-1> 지역무역협정(RTA) 현황 (2011년 7월 현재)

구분	총계
GATT, WTO에 발효중인 RTA	297

<출처 : fta.go.kr>

<표 2-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자유무역협정 (NAFTA, FTA 등)				
②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공동시장(EEC, CACM, COM, ANCOM 등)				
④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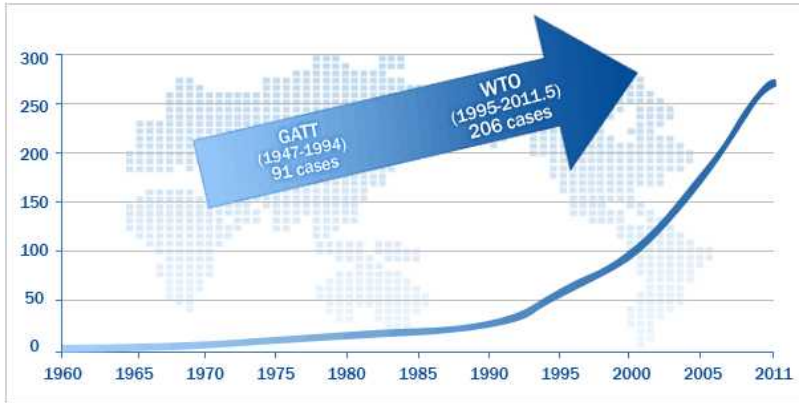
<출처 : fta.go.kr>

2. FTA 적용범위

-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계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게 제시됨.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최근 WTO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는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한 원인이라 볼 수 있음.

3. FTA 확산배경

-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추세에 있음.
-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91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많은 수(120)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음.
- 세계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구 사회주의 경제권의 시장경제로의 통합, WTO 다자간협상에 의한 국제적 규범의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지역주의 확산 등을 통하여 빠르게 개방되고 글로벌화 되고 있음.



<출처 : fta.go.kr>

<그림 2-1>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 수 변화 추이

- 이에 따라 상품·자본·기술·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추진되고 기업경영의 글로벌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결국 국가경제발전은 어떻게 글로벌화에 잘 대응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 UR이후 새로운 다자간협상인 WTO/DDA 협상이 2001년 Doha에서 개최 (4차 WTO각료회의)됨으로써 농업·서비스 외 비농산물 추가개방·지적재산권·무역규제(반덤핑·보조금)·환경·분쟁해결 등 7개 의제가 설정되어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그 후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다자간 협상인 WTO/DDA 협상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최근에 와서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이 급증되고 있음.
- 지역무역협정(RTA)의 하나로 각 국가들은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국 선정측면에서 지역개념 초월, 지역 횡단적 체결이 증가하고 있음(미·싱가포르 등).
-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적인 FTA대열에 동참을 주저해 왔던 동아시아 국가, 서남아시아 국가 등도 FTA 체결에 점차적으로

로 방향을 맞추고 있으며, 포괄적 FTA를 지향함과 동시에 WTO와 같은 다자간 통상규범보다 진전된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다만 분야별 순차적 개방방식 선호).

- 또한 산업별 타겟시장을 겨냥한 FTA(일본: 자동차시장을 겨냥한 태국과의 FTA등)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한 전략적 FTA(중·아세안 → 한·아세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FTA를 중심으로 지난 2005년에는 세계 총 무역 중 지역무역협정 내의 무역비중이 5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와 같이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하고 있음.
- FTA가 활성화되는 이유로는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란 의견이 제시됨.
- 또한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 수의 급증으로 일치된 의견 도출이 어려우며,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선진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이 대두되었으며,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FTA 활성화에 주요 원인으로 제시됨.

제2절 한미 FTA 추진과정 및 내용

1. 한·미 FTA 체결과정

-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4월 협상타결 및 6월 공식 서명 이후 양국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다가 2010년 12월 추가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
-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미국과의 FTA는 시장개방 수준에서도 단순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전분야에 걸쳐 포괄적임.
-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의 다른 FTA와 비교해 크게 미칠 것 이며, 따라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차원에서도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임.
- 한·미 FTA는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에 이어 약 3개월 후인 6월 30일에 공식 서명이 이루어짐.
- 2009년 5월 14일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친 한·미 통상협의 및 장관회의를 거친 끝에 12월 3일 추가협상을 최종 타결함.
- 지난 6월 26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한·미 FTA의 새로운 논의”를 지시하였고, 지난 11월 8 ~ 10일과 11월 30일 ~ 12월 3일 기간 동안 서울과 미국 메릴랜드 주 콜롬비아 시에서 한·미 통상장관회의가 각각 개최되었음.

<표 2-3> 한-미 FTA 추진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03.08	FTA 추진 로드맵마련 -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2004.05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2004.11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 점검회의 개최 협의
2005.02.03	한-미 FTA 사전실무 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서울)
2005.03.28. ~ 29	한-미 FTA 사전실무 점검회의 제2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04.28. ~ 29	한-미 FTA 사전실무 점검회의 제3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05.02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파리)
2005.06.03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제주)
2005.07.24. ~ 28	본부장 방미, 주요 상하원의원 및 업계 설득
2005.09	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정부 내부 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 조사 등을 통한 검토 전문가 연구 : 정부 발주 연구영역 포함, 10여개의 국내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 공청 회진행 설문조사 : 04.11월 전경련(87%), 12월 무역협회(75%) 및 한국갤럽(80%), '06.2월 중기협(80%)의 한-미 FTA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대상 대부분이 한-미 FTA 체결에 찬성 (괄호는 찬성비율)
2005.09.19. ~ 21	본부장 방미, 주요 정부관계자 면담
2005.09.20	한-미 통상장관회담(워싱턴)
2005.10.11	한-미 통상장관회담(제네바)
2005.11.16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부산)
2006.01.31	본부장-PortmanUSTR대표 면담(워싱턴)
2006.02.02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및 결정
2006.02.03	한-미 FTA 추진 발표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본부장-USTR대표 공동 기자회견
2006.03.06	한-미 FTA 제1차 비공식 사전준비 협의 개최
2006.04.17. ~ 18	한-미 FTA 제2차 비공식 사전준비 협의 개최
2006.06.05. ~ 09	한-미 FTA 제1차 공식 협상 개최(워싱턴)
2006.06.27	한-미 FTA 추진관련 공청회 개최
2006.07.10. ~ 14	한-미 FTA 제2차 공식 협상 개최(서울)
2006.09.06. ~ 09	한-미 FTA 제3차 공식 협상 개최(시애틀)
2006.10.23. ~ 27	한-미 FTA 제4차 공식 협상 개최(제주)
2006.12.04. ~ 08	한-미 FTA 제5차 공식 협상 개최(몬터나)
2007.01.15. ~ 19	한-미 FTA 제6차 공식 협상 개최(서울)
2007.02.11. ~ 14	한-미 FTA 제7차 공식 협상 개최(워싱턴)
2007.03.08. ~ 12	한-미 FTA 제8차 공식 협상 개최(서울)
2007.03.19. ~ 22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워싱턴)

<출처 : fta.go.kr>

<표 2-3> 한·미 FTA 추진경과(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07.03.26. ~ 04.02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서울)
2007.04.02	한-미 FTA 협상타결
2007.05.29. ~ 06.06	법률검토회의(워싱턴)
2007.06.21. ~ 22	추가협의를(서울)
2007.06.25. ~ 26	추가협의를(워싱턴)
2007.06.30	한미 FTA 공식서명(워싱턴)
2007.09.07	한미 FTA 비준동의안 17대국회 제출
2008.10.08	한미 FTA 비준동의안 18대국회 제출
2009.04.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010.11.30. ~ 12.03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12.3 추가협상 타결
2011.02.10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2011.05.04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06.03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1.09.16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교통상위원회 상정
2011.09.16	미 상하원 본회의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2.03.15	한-미 FTA 발효

<출처 : fta.go.kr>

- 미 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관세인하로 발생하는 對한 수출 파급효과가 연간 100~110억 달러 정도 증가하고, 최소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6% 증가하고, 對미 수출은 13억 2,8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해 ‘의약과 축산물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자동차를 양보’해 한·미 간에 ‘이익의 균형’을 이룬 협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미 FTA가 발효로 한국은 미국과 유럽, 아세안,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국가가 되었음.

2. 한·미 FTA 의의

1) 한국 개방정책의 지속

- 한국은 1980년대 말 이후 지속적인 경제 개방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글로벌화 추세에 적응하여 왔음. 구체적으로 상품교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무역의존도)이 70% 이상이며 서비스 교역의 비중도 13.5%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임.
- 또한 해외여행의 자유화도 진행되어 2004년 현재 관광 목적의 출국인의 전인구 대비 비중이 18.4%로서 일본의 13.2%보다 높은 수준임. 다만 관세 수준(특히 농산물)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높게 유지되어 수출에 있어서는 개방경제이나 수입에 있어서는 폐쇄적이라는 국제적 비판을 받음.

<표 2-4> 주요국의 교역규모 및 외국인직접투자

	상품교역 (對GDP,%)	서비스교역 (對GDP,%)	관세 (가중평균,%)		FDI(對GDP,%)	
					순유입	순유출
	2004	2004	1차상품	공산품	2004	2004
한국	70.4	13.5	19.0	5.0	1.2	0.7
싱가포르	321.5	76.6	0	0	15.0	9.9
네덜란드	117.0	24.7	0.9	2.1	0.1	3.0
중국	59.8	7.0	6.2	5.8	2.8	0.1
영국	38.1	15.4	0.9	2.1	3.4	3.8
일본	22.1	5.0	3.9	1.6	0.2	0.7
미국	20.0	5.4	1.0	1.8	0.9	2.2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 개방 과정에서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구조조정노력을 통해 이후 진행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의 확산에 대응하여 왔음.
- 1990년 후반의 외환위기는 글로벌 경제와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개방의 부작용 외에 국내 경제사회적 시스템의 노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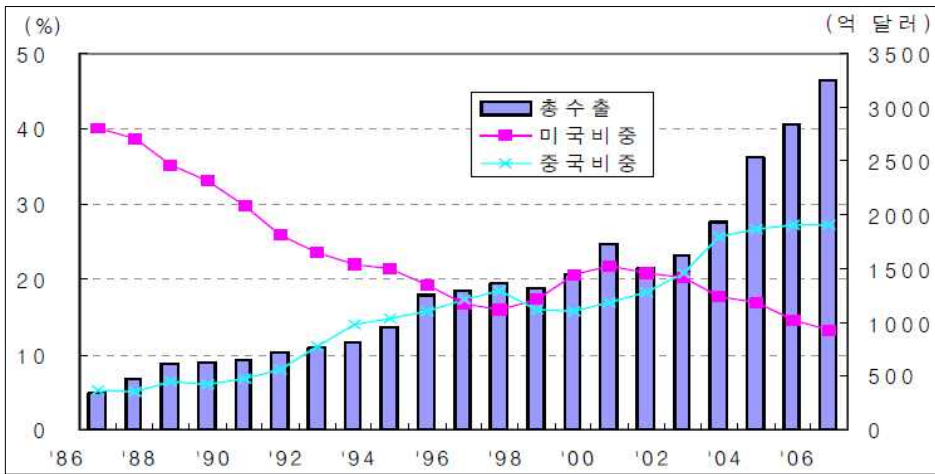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의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하고 이후 진행되는 세계적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FTA 추세에 발맞추어 칠레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EU와 미국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최근의 국제경제 환경은 WTO 체제의 비작동과 함께 지역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 중소국가 중심으로 진행되던 FTA에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강대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
- 전통적 FTA는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확대가 주목적이었으나 WTO 발족 이후 탄생한 FTA는 투자유치, 경제개혁 등 동태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음.
- 특히 경제발전 단계의 상이, 지리적 원근, 산업의 보완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유화 의지의 공유가 FTA의 중요한 계기가 됨.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미 FTA는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함.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서비스 산업 및 일부 취약한 산업을 개방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자유화 물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체결했던 소규모국가와의 FTA에서 세계 최대 국가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 통상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2) 과도한 중국의존도 탈피

-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수출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동하여 미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1986년 40.1%에 이르던 對미시장 수출 비중은 2006년 13.3%로 감소한 대신 對중국(홍콩포함) 수출 비중은 5.2%에서 27.2%로 크게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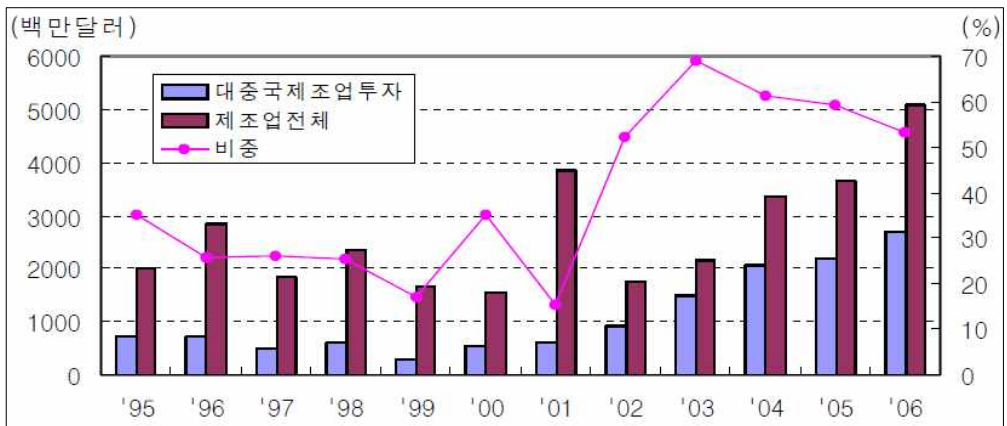
가하였음.

- 그러나 부품, 소재 등을 비롯하여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對중국 수출증가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으나 지난 2년간 對중국 수출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기 시작하였음. 이는 중국의 부품 및 소재산업의 발전(수입대체), 경기과열 진정 정책, 가공무역 규제 등이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음.



<자료 : 무역협회>

<그림 2-2> 한국의 총수출, 對미 및 對중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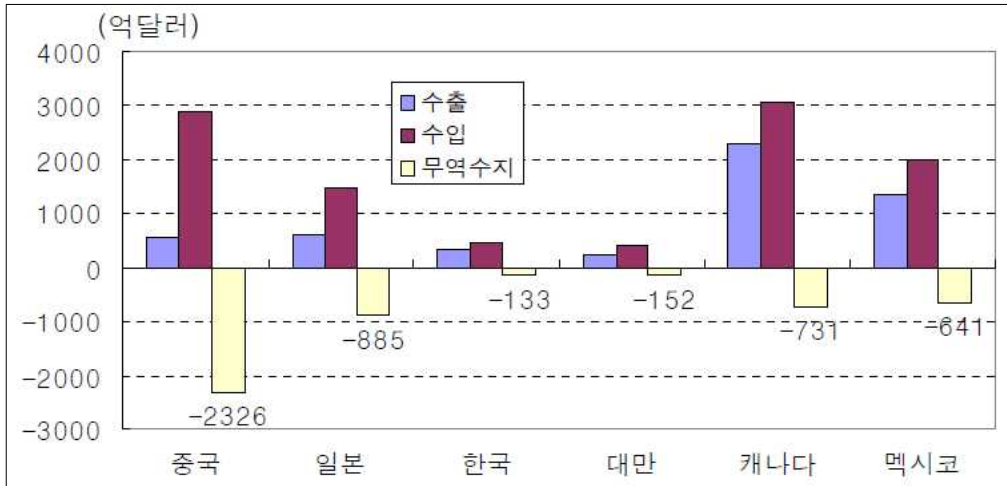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2-3> 한국제조업의 對중국 투자

- 과도한 對중국의존도는 중국경제의 변화에 따라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으므로 미국시장에서 입지 재강화 등으로 세계시장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중요함.
- 중국의 급격한 팽창은 주변국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3)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형성

- 탈냉전 이후의 세계질서의 변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진행 중임. 특히 9.11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의 급격한 정치적 안보적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음.
- 미국경제의 경상수지 적자문제의 가장 중요한 대상국은 동아시아이며 중국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며 적자의 상당부분은 동북아 국가로부터의 무역수지 적자에 기인하고 있음.
- 한·미 FTA는 성장하는 동북아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기여하고 세계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한·미 FTA를 통해서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지역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유리한 입지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자료 : 무역협회, 미국무역통계>

<그림 2-4> 미국의 주요교역국과의 수출입 및 수지(2006)

3. 한·미 FTA 타결내용

- 한미 FTA 협상결과를 보면, 제조업 제품에 대한 양허안 내용은 적극적인 시장개방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양국이 모든 제품에 대하여 100% 양허하였고,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한 품목의 비율이 한국과 미국 각각 97.6%, 8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내) 철폐에 합의하였음.
-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하고, 이후 3,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3년내 철폐하고, 자동차 관련 모든 부품의 관세도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함.
-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하여, 향후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실질적인 교역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의 對미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잠재적 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 제고하고, 미국 시장 내 주요 경쟁국 중 미국의 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동등한 입장에서, 미체결국인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2-5> 한-미 FTA의 상품분과 양허결과

(단위: 억불, %)

단계	한국 측				미국 측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철폐	7,218	85.6	200.0	80.6	6,176	87.0	331.0	87.2	
3년 균등	719	8.5	33.2	13.4	360	5.1	28.2	7.4	
5년 균등	168	2.0	3.8	1.5	196	2.8	8.7	2.3	
10년	균등	301	3.6	10.7	4.3	333	4.7	11.5	3.0
	비선형	24	0.3	0.3	0.0	12	0.2	0.1	0.0
12년	비선형	1	0.0	-	0.0	17	0.2	0.02	0.0
	TRQ	2	0.0	0.03	0.0				
15년(TRQ)	1	0.0	0.04	0.0					
총계	8,434	100	248.4	100	7,094	100	379.6	100	

<출처 : 외교통상부 (2010).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표 2-6> 한-미 FTA의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 관세율

단계	한국 측	미국 측
즉시	승용차(8), 자동차부품(3~8), 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 항공기엔진(3), 에어백(8), 전자계측기(8), 백미러(8), 디지털프로젝션TV(8) 등	3,000cc 이하 승용차(2.5), 자동차부품(1.3~10.2), LCD모니터(5), 캠코더(2.1), 귀금속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TV(5), 기타신발(8.5), 전구(2.6), 전기앰프(4.9) 등
3년	요소(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골프채(8) 등	DTV(5), 3,000cc 초과 승용차(2.5), 컬러TV(5), 골프용품(4.9), 상들리에(3.9) 등
5년	고주파증폭기(8), 알루미늄판(8), 안전면도날(8), 환자감시장치(8), 면도기(8), 조제세제(6.5), 헤어 린스(8), 바다가재(20) 등	타이어(4), 가죽의류(6), 폴리에테르(6.5), 스피커(4.9) 등
10년	기초화장품(8), 페놀(5.5), 초음파영상진단기(8), 볼베어링(13), 콘택트렌즈(8) 등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폴리에스테르수지(6.5), 모조장신구(11), 베어링(9), 섬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등
10년 비선형	아귀(10, 냉동), 가오리(10, 냉동), 볼락(10, 냉동), 오징어(24, 냉동), 콩치(36, 냉동), 꽃게(20-산갓, 신선-냉장, 냉동), 파티클보드(8), 섬유판(8), 합판(12) 등	참치캔(6~35), 세라믹타일(8.5/10), 철강(4.3~6.2)
10년 이상	명태(30, 냉동), 민어(63, 냉동), 기타 납치(10, 냉동), 고등어(10, 냉동)	특수신발(20~55.3)

<출처 : 외교통상부 (2010).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4.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식품가공산업에서의 원산지 규정은 다른 산업보다 그 중요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FTA 특혜원산지 판정기준 중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은 협정문에서 각 품목에 대한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에 규정하였음.
-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는 약 5,000여개(HS 6단위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한 정교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되었음.

- 특히 글로벌 아웃소싱의 활성화와 무역업계의 편의를 향상시키면서도, 우리 민감 산업 분야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양국은 완전생산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함.
 -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 양국의 영역에서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
 -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양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저 및 해저토양에서 잡히거나 채취된 어류 및 상품
 - 우주공간에서 채취되어 양국의 영역에서 가공된 상품
 - 중고 제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양국의 영역에서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 제품
- 완전생산기준이외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함
 - 미국과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규정
- 미소기준(De Minimis)
 - 양국은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서 역외산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가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가격의 10%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합의
 - 단, 일부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부속서

로 정리

- 이 경우에 미소기준은 혼합과 같은 단순공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양측은 이해를 같이함.

<표 2-7> 미소기준 적용제외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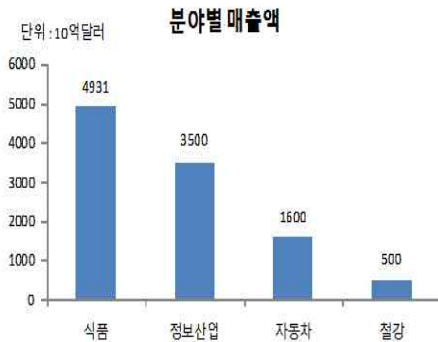
HS 코드	품목
3류	어류
4류	낙농제품
7류	채소류
1006, 11류	쌀제품
0805, 2009.11~39	감귤류, 주스류
8류, 20류	복숭아·배, 살구류
15류	동식물성 유지
17류	설탕

<출처 : 외교통상부 (2010).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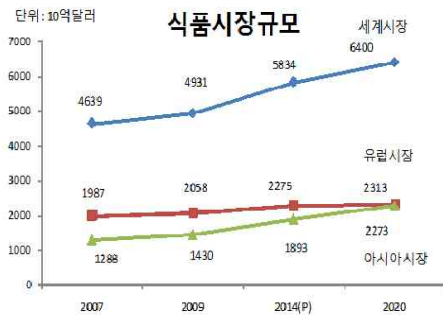
제3절 국내외 식품가공산업 현황

1. 세계식품산업 규모

- 세계식품 산업규모('09년)는 4.9조 달러로서 지속 확대 예상되고 있음.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세계시장은 IT(3.5조), 철강(0.5)보다 크며, '20년 6.4조 달러 전망되고 있음(Datamonitor, '09).
- 향후 2020년 세계식품시장의 40%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이 세계식품시장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그림 2-5> 분야별 매출액



<그림 2-6> 식품시장 규모

<표 2-8> 세계 식품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불)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세계 식품시장	4,639.9	4,793.5	4,931.7	5,089.7	5,259.5	5,440.0	5,631.5	5,834.0
유럽	1,987.4	2,027.4	2,058.0	2,096.3	2,137.8	2,181.5	2,227.5	2,275.3
아시아-태평양	1,288.4	1,361.3	1,430.3	1,509.5	1,595.5	1,687.7	1,787.0	1,893.9
북미	816.7	837.6	852.7	869.3	886.9	905.9	925.8	946.1
중남미	429.3	443.8	461.8	480.0	498.9	518.6	539.0	560.2
중동·아프리카	118.2	123.4	128.8	134.5	140.3	146.2	152.3	158.5

* 출처 : Datamonitor Interactiver Consumer Database 2011.

(Food, Alcoholic beverages, Non-alcoholic beverages, Tobacco 합계)

○ 2009년도 국가별 식품 교역액 순위를 보면, 미국이 총 1,566억불로 가장 많은 식품관련 교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독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의 식품교역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총 178억불로 23위로 제시되었음. 특히 식품 수출액보다 식품 수입액 규모가 3배이상 많아 농수산품을 포함한 식품산업의 경우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 2009년도 국가별 식품 교역액 순위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식품 수입액	식품 수출액	식품 교역액
1	미국	80,046.4	76,587.0	156,633.4
2	독일	66,168.0	60,413.1	126,581.1
3	프랑스	46,597.0	56,601.1	103,198.1
4	네덜란드	31,161.0	49,940.3	81,101.3
5	영국	49,897.0	22,898.9	72,795.9
6	이태리	37,457.0	30,529.9	67,986.9
7	벨기에	29,742.0	34,206.7	63,948.7
8	스페인	23,968.0	28,101.6	52,069.6
9	중국	16,749.9	34,154.0	50,903.9
10	캐나다	23,881.6	26,464.0	50,345.6
11	브라질	6,068.0	38,904.0	44,972.0
12	일본	41,672.5	2,892.0	44,564.5
13	러시아	33,304.0	8,876.0	42,180.0
14	멕시코	13,811.7	14,666.0	28,477.7
15	태국	6,260.8	21,781.0	28,041.8
16	호주	8,317.1	19,065.0	27,382.1
17	덴마크	10,146.0	17,010.6	27,156.6
18	폴란드	8,842.0	12,832.1	21,674.1
19	UAE	10,413.6	10,822.0	21,235.6
20	홍콩	14,821.0	5,082.0	19,903.0
	~	~	~	~
23	한국	13,590.5	4,191.0	17,781.5

* 자료:Euromonitor International Marketing Data and Statistics 2011

2. 국내 식품산업 현황

1) 국내 식품산업 시장규모

- 국내 식품산업 시장의 규모는 2009년 기준, 약 52.6조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2009년까지 연평균 약 6.3%가 성장하였음
- 특히 소득 증가와 함께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식품산업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산업도 크게 성장 중이나, 영세성으로 지속성장 한계도 존재함.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품제조업 54천개소 중 5인 미만이 8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09)

<표 2-10> 국내 식품산업 시장규모

(단위: 십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성장률
음료식품 제조업	3389	3283	3905	5493	3787	3087	3798	4442	4395	5286	6.3%

* 단, 사료제조업 제외

<표 2-11> 지역별 식품산업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식품	건강기능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지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계	2,553,578	100.00	964,586	100.00	1,026,204	100.00	408,162	100.00
서울	801,480	2.84	68,258	0.71	91,897	8.95	43,835	1.12
부산	1,800,877	6.30	15,308	0.16	11,784	1.15	24,771	0.60
대구	590,885	1.82	7,126	0.07	23,183	0.23	5,914	1.37
인천	285,138	9.76	84,491	8.72	65,771	6.42	17,967	4.19
광주	368,579	1.21	-	-	5,124	0.05	4,029	1.14
대전	787,852	2.40	66,339	0.63	18,262	0.18	23,456	5.98
울산	590,586	1.96	855	0.01	8,703	8.55	3,129	0.08
강원	988,094	3.08	12,652	1.25	4,672	0.04	6,375	1.51
경기	833,283	28.26	195,970	20.26	236,548	22.86	198,033	48.52
충북	321,880	10.97	14,970	14.72	40,658	4.39	62,067	15.30
충남	314,685	10.64	46,957	45.24	42,977	4.31	28,629	6.33
전북	1,262,143	4.28	3,184	3.75	21,278	20.58	14,237	3.61
전남	663,044	2.19	13,902	1.41	14,498	14.56	15,025	0.39
경북	1,492,952	4.87	18,539	1.95	23,745	2.47	13,906	3.02
경남	262,684	8.90	9,666	1.00	5,292	5.20	28,157	6.83
제주	159,672	0.52	1,331	0.14	690	0.06	788	0.02

주)1. 매출액=국내출하액+수출액

2. 축산물가공품, 용기류, 식품조사처리는 제외
3.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은 수출액에 대한 적용환율이 상이하여 식품의약품통계연보와 일치하지 않음

2) 우리나라 식품산업 사업체수 현황

- 우리나라의 제조업 사업체수는 지난 11년간 약 2.0% 증가로 나타났으며, 식품산업은 같은 기간 2.3% 증가.
 -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7.0%)에서 2009년(7.2%)까지 약 0.2%p 증가
- 세부 제조업별로 살펴보면, 담배제조업(-3.3%),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0.9%)등의 업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한 업종은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3.4%) 등의 순임.

<표 2-12> 한국의 식품산업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

구분	1999	2005	2009	증가율
제조업	47,485	57,198	57,996	2.0
식품산업	3,343	3,944	4,179	2.3
식료품 제조업	3,070	3,664	3,916	2.5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354	512	608	5.6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885	803	806	-0.9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315	416	425	3.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53	52	60	1.2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91	103	103	1.2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99	239	279	3.4
기타식품 제조업	1,034	1,336	1,416	3.2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39	203	219	4.7
음료제조업	259	268	253	-0.2
알콜음료 제조업	95	95	94	-0.1
비알콜음료 제조업	164	173	159	-0.3
담배 제조업	14	12	10	-3.3
담배제조업	14	12	10	-3.3

자료:KOSIS(광공업 제조업조사)

주1: HS 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와 직접적인 매칭이 어려워 국내표준산업으로 나타냄.

주2: 제조업은 제조업 전체 총합을 식품산업은 하위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담배제조업의 합을 나타냄

3) 한국 식품산업 종사자수 현황

-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수는 지난 11년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산업은 동기간 0.7% 증가.
-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7.2%)에서 2009년(6.9%)까지 약 -0.3%p 감소
-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제조업별로 살펴보면,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담배제조업(각각 -2.2%)의 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증가한 업종은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3.2%)등의 순임.

<표 2-13> 한국의 식품산업 종사자수 현황

(단위: 명,%)

구분	1999	2005	2009	증가율
제조업	2,190,099	2,443,197	2,452,880	1.1
식품산업	157,943	160,289	169,274	0.7
식료품 제조업	138,768	144,302	153,429	1.0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20,186	23,225	27,650	3.2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30,157	24,447	24,101	-2.2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9,847	12,778	14,357	3.8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3,241	2,042	2,450	-2.8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9,138	10,545	9,235	0.1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6,012	6,352	7,672	2.5
기타식품 제조업	53,675	58,020	60,802	1.3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6,512	6,893	7,162	1.0
음료제조업	15,746	13,384	13,109	-1.8
알콜음료 제조업	7,107	6,608	6,662	-0.6
비알콜음료 제조업	8,639	6,776	6,447	-2.9
담배 제조업	3,429	2,603	2,736	-2.2
담배제조업	3,429	2,603	2,736	-2.2

자료:KOSIS(광공업 제조업조사)

주1: HS 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와 직접적인 매칭이 어려워 국내표준산업으로 나타냄.

주2: 제조업은 제조업 전체 총합을 식품산업은 하위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담배제조업의 합을 나타냄

4) 한국 식품산업 부가가치 현황

- 지난 11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식품산업은 동기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9.1%)에서 2009년(6.3%)까지 -2.8% 감소
- 세부제조업별로 살펴보면, 담배 제조업(-1.8%)의 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그 다음으로는 알콜음료제조업(-0.5%)으로 나타났음. 증가한 업종은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1.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는 낙농제품(3.2%),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6.1%),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5.2%)등의 순임.

<표 2-14> 한국의 식품산업 부가가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999	2005	2009	증가율
제조업	188,673,218	291,152,665	374,500,730	7.1
식품산업	17,125,839	19,407,706	23,641,214	3.3
식료품 제조업	10,925,446	13,726,825	17,352,472	4.7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1,311,436	1,590,192	2,369,090	6.1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825,105	974,156	1,211,935	3.9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311,448	589,022	773,532	9.5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345,996	301,951	577,059	5.2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406,837	2,388,476	2,698,036	6.7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915,208	1,035,594	1,289,462	3.5
기타식품 제조업	4,526,386	5,590,453	6,717,228	4.0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283,030	1,256,981	1,716,130	3.0
음료제조업	4,007,057	4,114,442	4,451,432	1.1
알콜음료 제조업	2,849,591	2,421,448	2,720,103	-0.5
비알콜음료 제조업	1,157,466	1,692,994	1,731,329	4.1
담배 제조업	2,193,336	1,566,439	1,837,310	-1.8
담배제조업	2,193,336	1,566,439	1,837,310	-1.8

자료:KOSIS(광공업 제조업조사)

주1: HS 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와 직접적인 매칭이 어려워 국내표준산업으로 나타냈음.

주2: 제조업은 제조업 전체 총합을 식품산업은 하위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담배제조업의 합
을 나타냄

3. 전라북도 식품산업 현황

1) 전북 식품산업 규모 및 비중

- 전북의 식품산업 비중은 전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전국의 식품산업(식료품, 음료, 담배)에서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은 전체 제조업중 약 7.2%와 6.8%를 차지하는 반면, 전북의 경우 17.2%와 17.1%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함께 전북의 사업체당 종사자수 비율은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북의 식품산업은 지역내 제조업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노동투입이 많은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시군별 기업규모별 제조업 및 음식료품업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전북의 식품산업에 있어 300인 이상의 대기업 비중은 약 1%로 나타나며, 중기업(299-50인)의 경우 약 7%로 나타나며 나머지가 49인 이하 소기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10인 이하의 영세 기업체의 비중은 전체 식품업체 중 약 59%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5> 제조업 업종별 구성

(단위: 개소, 명, %)

구분	전국				전북				전북/전국	
	사업체		종업원		사업체		종업원		사업체	종업원
	개소	비중	명	비중	개소	비중	명	비중		
제조업계	5796	100	24280	100	1533	100	7371	100	27	30
식품품	3916	68	15349	63	248	156	11377	154	63	74
음료	23	04	13109	05	25	16	1288	17	99	98
담배	10	00	2736	01	0	00	0	00	00	00
섬유제품	300	53	8893	36	53	33	232	32	17	27
의복 의부속(의류 및 모제품)	2801	48	7930	32	134	84	3066	42	48	39
가죽 가방 및 신발	76	13	19106	08	2	01	03	...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777	13	16998	07	30	31	992	13	64	5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472	25	48198	20	47	30	242	33	32	51
인쇄 및 기록재 복제품	1354	23	3027	13	12	08	28	03	09	07
코스믹 안료 및 석유제품	130	02	10487	04	4	03	53	01	31	05
화학제품 및 화학제품(약품 제외)	2335	40	9219	40	102	64	6672	91	44	67
의약품 물질 및 약품	416	07	29128	12	12	08	74	10	29	2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4888	84	171176	70	88	55	2780	38	18	16
비금속 광물제품	2311	40	7864	32	147	92	4612	63	64	59
1차 금속	2344	40	119974	49	56	35	3901	53	24	33
금속 광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7985	137	223511	91	171	107	5199	71	22	23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652	63	30166	147	28	18	3630	49	08	10
의류 정밀 광학기 및 시계	1727	30	5601	23	9	06	201	03	05	04
전장장비	3571	62	14999	59	46	29	1652	22	13	11
가타기계 및 장비	7852	135	23356	103	115	72	4210	57	15	17
자동차 및 트럭과	3019	52	23009	102	187	11.7	15497	21.0	62	62
기타 운송장비	1315	23	148216	60	18	11	1300	22	14	11
가구	1236	22	33274	14	21	13	672	09	17	20
기타제품	916	16	22044	09	18	1.1	489	07	20	22

... : 자료 미상

자료: 통계청, KOSIS

<표 2-16> 시군별 기업규모별 제조업 및 음식료품업 현황

구분		계		대기업(300인이상)		중기업(299-50인)		소기업(49인이하)					
		업체수	종업원	업체수	종업원	업체수	종업원	소계		10인이상		10인미만	
								업체수	종업원	업체수	종업원	업체수	종업원
전주	제조업계	52	884	2	137	25	231	55	505	12	338	33	178
	음식료품	3	71	-	-	3	20	5	41	19	33	3	13
	%	94	82	-	-	120	96	93	96	117	98	83	93
군산	제조업계	683	2447	10	1037	61	6169	62	7871	24	6134	38	1737
	음식료품	67	208	1	38	7	108	59	75	27	57	32	13
	%	98	85	100	30	115	165	96	96	95	97	98	91
익산	제조업계	98	2165	8	537	65	6857	95	9701	33	702	52	209
	음식료품	122	404	1	172	10	126	111	106	39	75	7	30
	%	122	185	125	3.3	154	186	120	112	117	104	122	134
정읍	제조업계	35	579	-	-	28	258	27	321	13	251	14	60
	음식료품	89	135	-	-	7	64	82	84	35	74	47	10
	%	292	265	-	-	250	254	296	274	289	283	320	242
남원	제조업계	24	258	-	-	5	65	19	183	6	162	13	61
	음식료품	61	92	-	-	4	42	57	50	17	34	4	16
	%	299	378	-	-	800	670	286	271	279	282	290	288
김제	제조업계	36	654	1	58	26	2294	39	379	19	285	19	84
	음식료품	74	185	1	58	6	62	67	75	27	59	4	16
	%	298	287	1000	1000	231	271	204	199	194	197	21	206
완주	제조업계	31	1438	4	524	48	4965	29	403	10	337	19	75
	음식료품	5	71	-	-	1	26	51	55	17	32	37	13
	%	166	53	-	-	21	48	194	130	121	105	266	249
진안	제조업계	76	96	-	-	3	29	73	67	22	39	5	28
	음식료품	39	52	-	-	2	19	37	32	13	24	24	13
	%	513	620	-	-	667	706	507	584	591	627	471	516
무주	제조업계	3	36	-	-	-	-	3	36	11	21	27	125
	음식료품	2	19	-	-	-	-	2	19	7	129	15	6
	%	529	565	-	-	-	-	529	565	636	611	556	488
장수	제조업계	5	64	-	-	2	189	49	45	11	22	3	13
	음식료품	10	145	-	-	-	-	10	145	4	116	6	29
	%	196	229	-	-	-	-	204	326	364	443	158	158
임실	제조업계	82	125	-	-	4	56	78	79	24	42	54	27
	음식료품	4	82	-	-	4	56	37	36	9	25	28	12
	%	500	663	-	-	1000	1000	474	45	375	417	519	471
순창	제조업계	98	92	-	-	3	28	95	64	20	35	7	29
	음식료품	6	63	-	-	3	28	65	35	13	27	52	18
	%	694	746	-	-	1000	1000	684	633	650	629	683	638

<표 2-16> 시군별 기업규모별 제조업 및 음식료품업 현황(계속)

구분		계		대기업(300인이상)		중기업(299-50인)		소기업(49인이하)					
		업체수	종업원	업체수	종업원	업체수	종업원	소계		10인이상		10인미만	
								업체수	종업원	업체수	종업원	업체수	종업원
고창	제조업계	98	127	-	-	5	44	8	73	3	46	62	27
	음식료품	34	57	-	-	2	25	3	32	11	25	21	117
	%	36	44	-	-	40	46	34	41	43	44	39	48
부안	제조업계	15	129	-	-	3	26	12	105	3	50	12	45
	음식료품	9	73	-	-	2	22	8	41	11	29	7	22
	%	51	54	-	-	67	81	59	49	33	38	61	54
계	제조업계	402	9,238	25	2,233	28	2,832	379	4,043	139	2,324	238	1,819
	음식료품	85	1,539	3	238	5	506	71	727	29	490	52	2,27
	%	25	172	120	109	183	212	207	181	179	170	223	210

2) 전라북도 식품산업 사업체수 현황

- 전라북도 제조업 사업체수는 지난 11년간 약 2.3% 증가(식품산업은 3.7% 증가)
 - 식품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14.9%)에서 2009년(17.1%)까지 약 2.2%p 증가.
-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제조업은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1%)임.

<표 2-17> 전라북도의 식품산업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

구분	1999	2005	2009	증가율
제조업	1,267	1,271	1,593	2.3
식품산업	189	241	273*	3.7
식료품 제조업	170	221	248	3.8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21	46	53	9.7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24	23	25	0.4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8	25	26	3.7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5	4	4	-2.2
낙농제품 및 식용 병과류 제조업	10	11	14	3.4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3	23	34	10.1
기타식품 제조업	61	69	69	1.2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8	20	23	2.5
음료제조업	17	19	25	3.9
알콜음료 제조업	11	11	19	5.6
비알콜음료 제조업	6	8	6	0.0
담배 제조업	2	1	-	-6.7**
담배제조업	2	1	-	-6.7**

자료:KOSIS(광공업 제조업조사)

주1: HS 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와 직접적인 매칭이 어려워 국내표준산업으로 나타냄.

주2: 제조업은 제조업 전체 총합을 식품산업은 하위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담배제조업의 합을 나타냄

주3: * 는 담배제조업을 제외한 합계, **은 2005년까지의 증가율임

3) 전라북도 식품산업 종사자수 현황

- 전라북도 제조업 종사자수는 지난 11년간 1.2% 증가(식품산업의 경우는 동기간 2.8% 증가).
-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14.7%)에서 2009년(17.2%)까지 약 2.5%p 증가
-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산업은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8.8%)이며, 그 다음으로는 비알콜음료 제조업(7.7%)임.

<표 2-18> 전라북도의 식품산업 종사자수 현황

(단위: 명,%)

구분	1999	2005	2009	증가율
제조업	65,312	63,824	73,721	1.2
식품산업	9,582	11,634	12,665	2.8
식료품 제조업	8,624	10,672	11,377	2.8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3,102	3,969	4,183	3.0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516	631	727	3.5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360	578	639	5.9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21	61	98	-2.1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617	737	774	2.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309	667	720	8.8
기타식품 제조업	3,089	3,399	3,461	1.1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510	630	775	4.3
음료제조업	958	962	1,288	3.0
알콜음료 제조업	859	808	1,093	2.4
비알콜음료 제조업	99	154	195	7.0
담배 제조업	-	N/A
담배제조업	-	N/A

자료:KOSIS(광공업 제조업조사)

주1: HS 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와 직접적인 매칭이 어려워 국내표준산업으로 나타냄.

주2: 제조업은 제조업 전체 총합을 식품산업은 하위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의 합을 나타냄

주3: ... 는 자료 미상, -는 자료없음

4) 전라북도 식품산업 부가가치 현황

- 지난 11년간 전라북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5.4% 증가(식품산업은 동기간 3.0% 증가)
 -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17.6%)에서 2009년(14.0%)까지 -3.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산업은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8.2%)이며, 그 다음으로는 비알콜음료 제조업(15.9%),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2.8%) 등의 순임.

<표 2-19> 전라북도의 식품산업 부가가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999	2005	2009	증가율
제조업	5,993,794	7,376,199	10,172,639	5.4
식품산업	1,052,074	1,312,428	1,420,162	3.0
식료품 제조업	800,931	944,593	1,025,627	2.5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149,493	199,879	286,697	6.7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12,332	27,338	41,182	12.8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8,790	19,765	17,527	7.1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6,706	6,007	14,067	7.7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70,674	68,264	121,931	5.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7,867	117,024	95,503	18.2
기타식품 제조업	373,970	337,133	217,704	-5.3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61,099	169,183	231,016	3.7
음료제조업	251,143	367,835	394,535	4.6
알콜음료 제조업	247,910	348,607	380,344	4.4
비알콜음료 제조업	3,233	19,228	14,191	15.9
담배 제조업	-	N/A
담배제조업	-	N/A

자료:KOSIS(광공업 제조업조사)

주1: HS 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와 직접적인 매칭이 어려워 국내표준산업으로 나타냈음.

주2: 제조업은 제조업 전체 총합을 식품산업은 하위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의 합을 나타냄

주3: ... 는 자료 미상, -는 자료없음

5) 전라북도 식품산업 시·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1) 전라북도 시·군별 식품산업 사업체수 현황

- 전라북도 전체 식품산업 제조업의 사업체수는 2009년 기준 264개로 나타났으며, 식품산업 구성으로 볼 경우 식료품 제조업이 239개(90.5%), 음료 제조업은 25개(9.5%), 담배제조업은 사업체가 없음.
- 식료품 제조업은 익산시(38개)에 가장 많은 업체가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김제시(35개), 군산시(34개), 정읍시(23개), 전주시(20개) 등의 순임. 음료제조업의 경우 군산시(4개)에 가장 많은 업체가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에 3개의 업체가 입지해 있음.

<표 2-20> 시·군별 식품산업 사업체수 현황

(단위:개,%)

시군구	산업	1999	2005	2009	연평균증가율
전주시	제조업	243	200	214	-1.3
	식료품제조업	12	20	20	5.2
	음료제조업	3	2	3	0.0
	담배제조업	1	-	-	N/A
군산시	제조업	155	181	408	10.2
	식료품제조업	24	23	34	3.5
	음료제조업	5	3	4	-2.2
	담배제조업	0	0	0	0.0
익산시	제조업	365	323	336	-0.8
	식료품제조업	25	34	38	4.3
	음료제조업	2	3	3	4.1
	담배제조업	0	0	0	0.0
정읍시	제조업	109	108	121	1.0
	식료품제조업	24	24	23	-0.4
	음료제조업	1	1	1	0.0
	담배제조업	0	0	0	0.0
남원시	제조업	59	54	57	-0.3
	식료품제조업	5	11	14	10.8
	음료제조업	-	-	2	N/A
	담배제조업	1	1	-	N/A

자료:KOSIS(광공업 제조업조사)

〈표 2-20〉 시·군별 식품산업 사업체수 현황(계속)

(단위:개,%)

시군구	산업	1999	2005	2009	연평균증가율
김제시	제조업	107	158	163	4.3
	식품제조업	18	31	35	6.9
	음료제조업	1	1	-	N/A
	담배제조업	0	0	0	0.0
완주군	제조업	109	106	149	3.2
	식품제조업	8	5	9	1.2
	음료제조업	2	3	3	4.1
	담배제조업	0	0	0	0.0
진안군	제조업	11	13	15	3.2
	식품제조업	8	7	11	3.2
	음료제조업	-	1	-	N/A
	담배제조업	0	0	0	0.0
무주군	제조업	6	11	5	-1.8
	식품제조업	3	4	3	0.0
	음료제조업	0	0	0	0.0
	담배제조업	0	0	0	0.0
장수군	제조업	12	12	13	0.8
	식품제조업	4	6	5	2.3
	음료제조업	0	0	0	0.0
	담배제조업	0	0	0	0.0
순창군	제조업	15	16	21	3.4
	식품제조업	6	11	13	8.0
	음료제조업	2	2	1	-6.7
	담배제조업	0	0	0	0.0
고창군	제조업	21	33	34	4.9
	식품제조업	7	15	12	5.5
	음료제조업	1	3	6	19.6
	담배제조업	0	0	0	0.0
부안군	제조업	30	33	40	2.9
	식품제조업	16	19	22	3.2
	음료제조업	-	-	2	N/A
	담배제조업	0	0	0	0.0

자료:KOSIS(광공업 제조업조사)

주: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자료 중 자료미상(...)과 자료없음(-)은 모두 0으로 처리

(2) 전라북도 시·군별 식품산업 종사자수 현황

- 전라북도 전체 식품산업 제조업의 종사자수는 2009년 기준 8,609명임. 세부산업별로는 식료품 제조업이 8,021명(9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료제조업은 588개(6.8%) 그리고 담배제조업은 종사자가 없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익산시(2,781개)에 가장 많은 업체가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김제시(1,457개), 군산시(1,269개), 전주시(361개), 부안군(350개)등 임. 음료제조업의 경우 군산시(358개), 익산시(160개), 정읍시(70개)에 모든 업체가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1> 시·군별 식품산업 종사자수 현황

(단위:개,%)

시군구	산업	1999	2005	2009	연평균증가율
전주시	제조업	11,171	10,957	9,689	-1.4
	식료품제조업	477	487	361	-2.7
	음료제조업	63	0	0	-100.0
	담배제조업	0	0	0	0.0
군산시	제조업	12,920	14,560	12,262	-0.5
	식료품제조업	1,315	1,223	1,269	-0.4
	음료제조업	381	299	358	-0.6
	담배제조업	0	0	0	0.0
익산시	제조업	19,805	20,031	19,036	-0.4
	식료품제조업	2,885	2,724	2,781	-0.4
	음료제조업	0	0	160	0.0
	담배제조업	0	0	0	0.0
정읍시	제조업	4,491	4,116	4,239	-0.6
	식료품제조업	894	698	703	-2.4
	음료제조업	0	67	70	0.0
	담배제조업	0	0	0	0.0
남원시	제조업	2,020	2,128	2,106	0.4
	식료품제조업	275	386	337	2.1
	음료제조업	0	0	0	0.0
	담배제조업	0	0	0	0.0

자료:KOSIS(광공업 제조업조사)

주: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자료 중 자료미상(...)과 자료없음(-)은 모두 0으로 처리

<표 2-21> 시·군별 식품산업 현황(계속)

(단위:개,%)

시군구	산업	1999	2005	2009	연평균증가율
김제시	제조업	3,898	4,085	4,663	1.8
	식품제조업	1,236	1,203	1,457	1.7
	음료제조업	0	0	0	0.0
	담배제조업	0	0	0	0.0
완주군	제조업	7,923	8,314	8,167	0.3
	식품제조업	169	182	132	-2.4
	음료제조업	0	0	0	0.0
	담배제조업	0	0	0	0.0
진안군	제조업	411	373	370	-1.0
	식품제조업	198	145	156	-2.4
	음료제조업	0	0	0	0.0
	담배제조업	0	0	0	0.0
무주군	제조업	116	103	129	1.1
	식품제조업	39	0	0	-100.0
	음료제조업	0	0	0	0.0
	담배제조업	0	0	0	0.0
장수군	제조업	336	373	368	0.9
	식품제조업	109	111	128	1.6
	음료제조업	0	0	0	0.0
	담배제조업	0	0	0	0.0
순창군	제조업	400	521	538	3.0
	식품제조업	238	285	259	0.8
	음료제조업	0	0	0	0.0
	담배제조업	0	0	0	0.0
고창군	제조업	494	424	444	-1.1
	식품제조업	83	117	88	0.6
	음료제조업	0	0	0	0.0
	담배제조업	0	0	0	0.0
부안군	제조업	651	676	694	0.6
	식품제조업	321	341	350	0.9
	음료제조업	0	0	0	0.0
	담배제조업	0	0	0	0.0

자료:KOSIS(광공업 제조업조사)

주: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자료 중 자료미상(...)과 자료없음(-)은 모두 0으로 처리

6)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정부는 세계 식품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북 익산에 조성하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식품시장으로의 수출지향형 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과 국책 농식품 R&D 기관들을 연계하여 식품가공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새만금 등 주변 인프라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게 될 것임
- R&D 중심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네덜란드 푸드 벨리(Food Valley), 덴마크-스웨덴 외레순(Oresund) 클러스터 등과 함께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임



<그림 2-7>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도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음.
-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91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많은 수(120)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음.
- 세계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구 사회주의 경제권의 시장경제에의 통합, WTO 다자간협상에 의한 국제적 규범의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지역주의 확산 등을 통하여 빠르게 개방되고 글로벌화 되고 있음.
-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4월 협상타결 및 6월 공식 서명 이후 양국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다가 2010년 12월 추가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
-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미국과의 FTA는 시장개방 수준에서도 단순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전분야에 걸쳐 포괄적임.
-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의 다른 FTA와 비교해 크게 미칠 것 이며, 따라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차원에서도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임.
- 전북의 식품산업 비중은 전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전국의 식품산업(식료품, 음료, 담배)에서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은 전체 제조업중 약 7.2%와 6.8%를 차지하는 반면, 전북의 경우 17.2%와 17.1%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 제조업 사업체수는 지난 11년간 약 2.3% 증가(식품산업은 3.7% 증가)
- 전라북도 제조업 종사자수는 지난 11년간 1.2% 증가(식품산업의 경우는 동기간 2.8% 증가).
- 지난 11년간 전라북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5.4% 증가(식품산업은 동기간 3.0% 증가)
- 정부는 세계 식품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북 익산에 조성하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식품시장으로의 수출지향형 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와 국책 농식품 R&D 기관들을 연계하여 식품가공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새만금 등 주변 인프라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게 될 것임
- 종합하면 전북은 전체 제조업에서 식품가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식품가공산업 분야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한미 FTA를 통해 수출증대 및 R&D에 있어 지역차원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존 농수산물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확대 가능성을 가진다고 예상할 수 있음

제 3 장



한미 FTA가 전북 식품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제 1 절 우리나라 식품가공산업 수출입 구조
- 제 2 절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수출입 구조
- 제 3 절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수출경쟁력
- 제 4 절 분석 종합

제3장 한미 FTA가 전북 식품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우리나라 식품산업 수출입 구조

1. 국내산업의 무역구조

- 한국의 무역수지는 2009년 들어서부터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도는 약 412억불 (전년대비 1.8% 증가), 2011년도 상반기는 167억불 흑자를 달성함.
- 2009년도의 대외무역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와 함께 2010년 급격히 상승하면서 현재까지 안정세를 보임.

<표 3-1> 한국의 對 세계 무역수지

(단위 : 천\$,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수출액	253,844,672	284,418,743	325,464,848	371,489,086	422,007,328	363,533,561	466,383,762
	증가율	31	12	14	14	14	-14	28
수입	수입액	224,462,687	261,238,264	309,382,632	356,845,733	435,274,737	323,084,521	425,212,160
	증가율	26	16	18	15	22	-26	32
무역수지		29,381,985	23,180,479	16,082,216	14,643,352	-13,267,409	40,449,040	41,171,601

- 한국의 對 미국 수출은 2010년 498억불로 2009년 대비 32.3%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 상반기 수출액은 279억불을 달성, 전년 상반기 대비 18.5% 증가하여 57억불 흑자를 달성함.
- 한국의 對 미국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2010년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출증가율과 무역수지 증가율은 상승세에 있음.

- 2011년 상반기 수입증가율 9.9%, 수출증가율은 18.5%로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짐.

<표 3-2> 한국의 對 미국 무역수지

(단위 : 천\$,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수출액	42,849,193	41,342,584	43,183,502	45,766,102	46,376,610	37,649,854	49,816,058
	증가율	25.2	-3.5	4.5	6.0	1.3	-18.8	32.3
수입	수입액	28,782,652	30,585,938	33,654,171	37,219,301	38,364,783	29,039,451	40,402,691
	증가율	16.0	6.3	10.0	10.6	3.1	-24.3	39.1
무역수지		14,066,541	10,756,647	9,529,331	8,546,802	8,011,827	8,610,403	9,413,367

- 한국의 수출액 중 對 미국 수출비중은 2011년 상반기에 10.1%이며, 수입 비중은 8.6%임.
- 한국의 수출액에서 對 미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對 EU 수출비중보다 1% 낮음.
- 한국의 수입액에서 對 미국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수출비중과 수입비중의 갭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표 3-3> 한국의 총 수출액 중 對 미국 수출입 비중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비중	16.9%	14.5%	13.3%	12.3%	11.0%	10.4%	10.7%
수입비중	12.8%	11.7%	10.9%	10.4%	8.8%	9.0%	9.5%

2. 우리나라 식품산업 수출·입 현황

1) 식품산업 수출·입 현황 분석을 위한 분류

- 우리나라 및 전라북도 식품산업 수출입 현황 분석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둬.
- 분석은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 2단위임. 이는 HS Code 6단위로 분석할 경우 너무 방대하기 때문임.
- 단 식품산업 FTA 협정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HS Code 6단위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다시 2단위로 합산하여 분석함.
- 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의 <표 3-4>과 같음.

<표 3-4> 식품제품 품목분류

구분	품목(HS Code)	품목명
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식품	01	산동물
	02	육,식용설유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05	기타 동물성생산물
2부 식물성 식품	06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08	식용의 과일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10	곡물
	11	제분공업생산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12	채유용 종자, 과일, 각종 종자, 과일, 공업용, 의약품식물, 짚, 사료식물
	13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물
3부 우동	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4부 조제식료품 과 음료,식초,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품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	당류와 설탕과자
	18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19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20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21	각종 조제식료품
	22	음료, 알코올, 식초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자료: 한국무역협회(품목검색)

2) 우리나라 식품산업 수출 현황

(1) 우리나라 식품산업¹⁾에 대한 총 수출 현황

- 우리나라 식품산업 총 수출액은 6,221백만불이며(2011년 기준), 지난 10년간 10.4% 증가
 - 총 수출액 대비 식품산업 비중은 2011년 현재 약 1.1%로 2002년(1.6%)보다 약 -0.5%p 감소. 식품산업의 수출액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 차이가 감소한 것은 전체적인 수출규모의 확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²⁾
- 세부 품목별로는 14류(-23.7%), 16류(-1.0%), 08류(-0.8%)가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모든 품목은 증가.
 - 증가 품목은 위의 감소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나타남. 특히 식품산업 전체평균(10.4%)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인 품목들은 10류(39.7%), 05류(22.8%), 15류(20.4%), 21류(19.7%), 23류(15.8%), 22류(14.6%) 등의 순임.

1) 여기에서 말하는 식품산업이란 HS 코드 기준 01류에서 23류까지의 산업 전체를 의미한다. 정확히는 식품품목에 대한 수출 합의 의미가 정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식품산업으로 통일하여 명칭함.

2) 수출규모의 비중차가 감소한 이유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통계데이터를 실질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HS 코드 품목별 수출 및 수입물가지수가 존재하지 않고, 각기 다른 품목을 동일한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 시켰을 경우, 품목의 수출·입 현황과약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단위에서 현황을 분석하였음

<표 3-5> 한국 식품산업 총 수출액

(단위:천\$, %)

품목(HS Code)	2002	2007	2011	연평균증가율
총 수출액	162,470,528	371,489,086	555,213,656	14.6
식품산업 수출액 합계	2,559,446	3,258,740	6,221,793	10.4
01류	1,012	1,234	1,721	6.1
02류	21,200	29,734	39,738	7.2
03류	799,477	942,852	1,781,495	9.3
04류	6,066	11,508	19,149	13.6
05류	20,561	36,935	130,585	22.8
06류	35,193	59,654	92,352	11.3
07류	83,572	89,318	138,762	5.8
08류	128,220	100,147	125,638	-0.2
09류	13,902	13,429	45,559	14.1
10류	352	1,575	7,123	39.7
11류	21,382	34,296	58,387	11.8
12류	123,731	155,935	305,409	10.6
13류	41,418	55,379	67,294	5.5
14류	685	312	60	-23.7
15류	20,127	31,293	107,126	20.4
16류	243,297	126,511	222,438	-1.0
17류	158,580	238,635	473,389	12.9
18류	28,729	31,143	49,108	6.1
19류	298,480	387,498	644,623	8.9
20류	101,152	149,523	194,667	7.5
21류	184,061	437,174	927,388	19.7
22류	190,918	271,382	649,896	14.6
23류	37,331	53,273	139,886	15.8

자료: 한국무역협회

(2)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대한 對미 수출 현황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對미 총 수출액은 56,207백만불이며, 이중 식품산업 수출액은 504백만불임(10년간 수출액은 8.0% 상승)
- 품목별로 살펴보면, 감소품목은 14류(-100.0%), 23류(-6.3%), 17류(-3.8%), 16류(-1.1%)등 이며, 증가품목은 02류(59.2%), 07류(24.4%), 03류(16.9%), 11류(16.6%), 22류(12.8%), 21류(12.5%) 등임.

<표 3-6> 한국 식품산업 對미 수출액

(단위:천\$, %)

품목(HS Code)	2002	2007	2011	연평균증가율
對미 총 수출액	37,780,188.2	45,766,102.5	56,207,702.7	6.2
식품산업 합계	252,277	359,341	504,695	8.0
01류	67.4	511.1	330.2	19.3
02류	0.0	0.0	376.8	59.2
03류	23,383.6	46,591.5	95,654.6	16.9
04류	3,076.1	3,799.3	4,323.2	3.9
05류	128.0	86.7	359.7	12.2
06류	1,928.7	2,172.1	1,952.6	0.1
07류	1,404.3	5,480.5	10,039.9	24.4
08류	19,348.6	27,250.8	27,887.4	4.1
09류	1,802.5	3,264.6	3,050.0	6.0
10류	229.2	1,050.3	392.3	6.2
11류	1,811.0	2,696.1	7,221.2	16.6
12류	11,622.4	14,648.2	22,024.6	7.4
13류	2,775.1	6,099.2	9,145.6	14.2
14류	2.6	0.6	0.0	-100.0
15류	1,310.3	698.2	1,921.5	4.3
16류	38,206.9	27,634.8	34,659.1	-1.1
17류	7,150.4	3,941.8	5,044.5	-3.8
18류	588.9	1,637.2	928.7	5.2
19류	73,443.6	84,463.7	105,374.3	4.1
20류	7,226.0	12,587.8	12,629.5	6.4
21류	36,460.1	80,754.7	105,448.2	12.5
22류	18,610.4	33,060.5	54,985.5	12.8
23류	1,701.5	910.9	945.5	-6.3

자료: 한국무역협회

(3) 한·미 FTA 협정대상³⁾ 식품산업에 대한 수출 현황

-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협정대상 식품산업의 총 수출액은 2011년 약 402백만불이며, (지난 10년간 9.0% 증가)
- 증가품목은 02류(59.2%), 07류(23.6%), 20류(17.9%), 03류(17.5%), 11류(17.0%), 10류(16.8%), 05류(15.7%)의 순임.. 반면 감소한 품목은 14류(-100.0%), 01류(-84.9%), 09류(-6.3%), 23류(-6.3%), 17류(-3.8%) 등의 순임.

<표 3-7> 한·미 FTA 협정대상 식품산업 對미 수출액 (단위:천\$, %)

품목(HS Code)	2002	2007	2011	연평균증가율
식품산업 합계	184,607.2	283,842.6	402,141.1	9.0
01류	0.0	0.0	0.0	-84.9
02류	0.0	0.0	376.8	59.2
03류	9,764.1	19,283.5	41,763.3	17.5
04류	3,091.4	3,782.7	4,323.2	3.8
05류	132.5	86.7	493.3	15.7
06류	1,835.2	2,167.3	1,952.4	0.7
07류	1,352.0	5,379.0	9,112.1	23.6
08류	1,617.8	1,165.6	2,096.5	2.9
09류	1,344.4	1,620.3	748.3	-6.3
10류	63.9	939.6	257.8	16.8
11류	2,981.0	4,731.4	12,273.1	17.0
12류	2,506.6	4,915.1	7,950.4	13.7
13류	2,775.1	6,099.2	9,145.6	14.2
14류	2.6	0.6	0.0	-100.0
15류	1,817.9	745.8	1,946.9	0.8
16류	8,215.0	9,110.8	12,152.8	4.4
17류	7,150.4	3,941.8	5,022.9	-3.8
18류	588.9	1,637.2	928.7	5.2
19류	73,443.6	84,463.7	105,374.3	4.1
20류	2,399.1	8,392.5	10,598.9	17.9
21류	38,977.0	85,133.8	111,951.8	12.4
22류	22,847.7	39,334.8	62,726.6	11.9
23류	1,701.1	910.9	945.5	-6.3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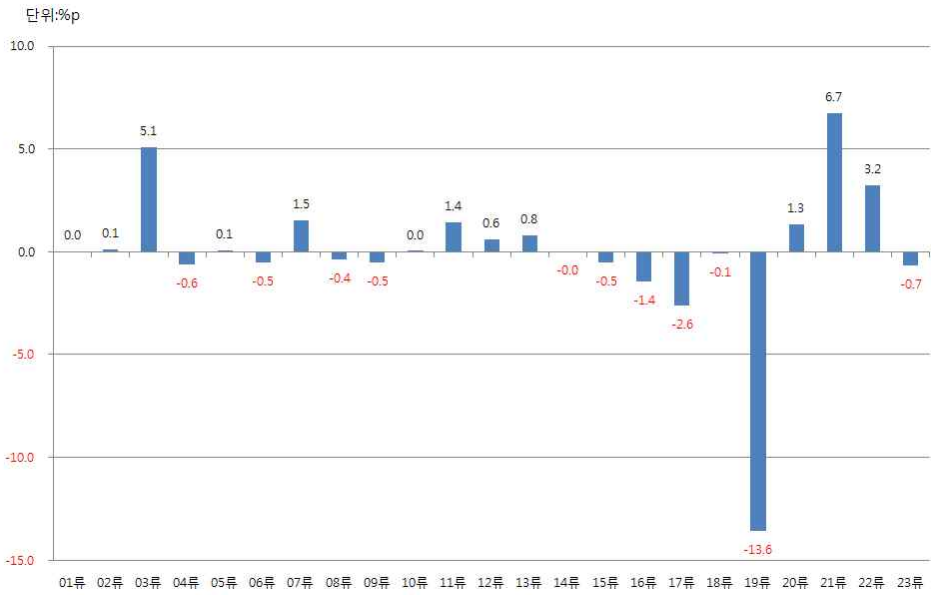
3) 협정대상 품목이라 함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 대상 품목을 의미함.

- 전체 식품제품에 대한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2011년 기준), 21류(27.8%), 19류(26.2%), 22류(15.6%), 03류(10.4%) 등의 순임.
- 2011년과 2002년간의 수출 비중차를 살펴보면 19류(-13.6%), 17류(-2.6%), 16류(-1.4%), 23류(-0.7%), 04류(-0.6%), 06류(-0.5%), 08류(-0.4%)등의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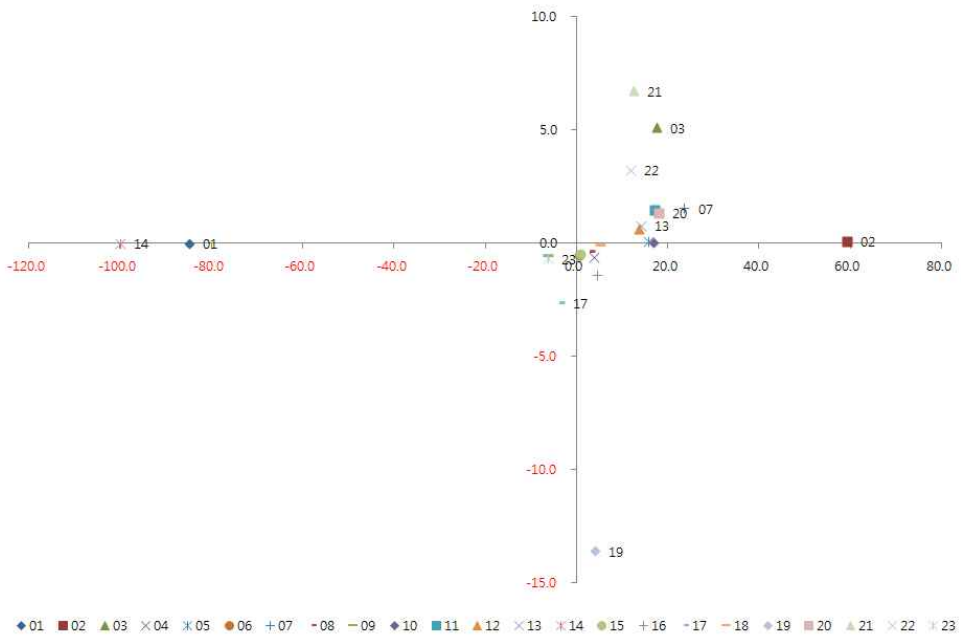
<표 3-8> 한국 협정대상 식품제품의 각 품목별 비중 및 비중차 (단위:%, %p)

품목(HS Code)	2002(A)	2007	2011(B)	비중차(B-A)
식품산업 합계	100.0	100.0	100.0	0.0
01류	0.0	0.0	0.0	0.0
02류	0.0	0.0	0.1	0.1
03류	5.3	6.8	10.4	5.1
04류	1.7	1.3	1.1	-0.6
05류	0.1	0.0	0.1	0.1
06류	1.0	0.8	0.5	-0.5
07류	0.7	1.9	2.3	1.5
08류	0.9	0.4	0.5	-0.4
09류	0.7	0.6	0.2	-0.5
10류	0.0	0.3	0.1	0.0
11류	1.6	1.7	3.1	1.4
12류	1.4	1.7	2.0	0.6
13류	1.5	2.1	2.3	0.8
14류	0.0	0.0	0.0	-0.0
15류	1.0	0.3	0.5	-0.5
16류	4.4	3.2	3.0	-1.4
17류	3.9	1.4	1.2	-2.6
18류	0.3	0.6	0.2	-0.1
19류	39.8	29.8	26.2	-13.6
20류	1.3	3.0	2.6	1.3
21류	21.1	30.0	27.8	6.7
22류	12.4	13.9	15.6	3.2
23류	0.9	0.3	0.2	-0.7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3-1> 한국-미국 협정대상 품목 수출 비중차



<그림 3-2> 한국-미국 협정대상 품목의 연평균 증가율에 대한 비중차의 분산

3) 우리나라 식품산업 수입 현황

(1)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대한 총수입 현황

- 우리나라 식품산업 총 수입액은 25,761백만불이며(2011년 기준), 지난 10년간 12.2% 증가.
- 세부 품목별로는 모든 품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품목은 09류(24.0%)로 나타남.

<표 3-9> 한국 식품산업 총 수입액

(단위:천\$, %)

품목(HS Code)	2002	2007	2011	연평균증가율
총 수입액	152,126,152.7	356,845,733.3	524,413,089.9	14.7
식품산업 수입액 합계	9,121,109	16,138,208	25,761,785	12.2
01류	33,926	52,097	76,047	9.4
02류	1,266,785	2,015,527	3,454,807	11.8
03류	1,676,065	2,628,610	3,413,904	8.2
04류	154,653	371,018	763,244	19.4
05류	104,894	141,999	245,387	9.9
06류	34,281	67,905	62,393	6.9
07류	134,867	372,869	682,612	19.7
08류	267,929	673,983	1,054,276	16.4
09류	103,638	253,456	718,546	24.0
10류	1,604,691	2,826,472	4,625,865	12.5
11류	82,015	177,175	263,414	13.8
12류	630,144	954,897	1,448,260	9.7
13류	73,223	102,150	145,983	8.0
14류	11,656	17,514	28,376	10.4
15류	328,499	790,599	1,463,663	18.1
16류	185,667	432,868	596,102	13.8
17류	413,248	668,404	1,469,237	15.1
18류	120,837	212,330	339,470	12.2
19류	149,687	325,774	457,993	13.2
20류	317,154	619,248	781,522	10.5
21류	413,679	612,084	1,156,542	12.1
22류	418,609	655,583	732,489	6.4
23류	594,962	1,165,646	1,781,653	13.0

자료: 한국무역협회

(2) 식품품목에 대한 對미 수입 현황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對미 총 수입액은 44,569백만불이며 이중 식품산업 수출액은 6,665백만불임(지난 10년간 식품산업의 수입액은 12.2% 증가)
- 품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03류(-1.7%), 13류(-3.3%)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0> 한국 식품산업 對미 수입액

(단위:천\$, %)

품목(HS Code)	2002	2007	2011	연평균증가율
對미 총 수입액	23,008,634.9	37,219,300.7	44,569,029.3	7.6
식품산업 합계	2,359,161	3,444,906	6,665,479	12.2
01류	9,235.1	21,421.2	25,680.6	12.0
02류	729,966.3	339,323.3	1,288,227.3	4.1
03류	162,584.5	129,106.9	138,809.9	-1.7
04류	26,376.4	70,070.2	182,191.5	24.0
05류	28,923.8	25,511.6	38,524.0	3.2
06류	317.3	864.8	1,078.2	14.6
07류	6,355.9	13,711.9	17,966.3	12.2
08류	123,571.5	243,519.7	467,290.7	15.9
09류	5,953.3	16,282.2	28,809.4	19.1
10류	341,914.8	1,380,651.3	2,574,209.8	25.1
11류	1,546.7	7,440.2	2,316.4	4.6
12류	367,367.3	400,394.9	597,793.1	5.6
13류	25,160.4	20,956.2	18,620.3	-3.3
14류	124.6	185.5	3,995.4	47.0
15류	81,914.2	122,957.6	122,577.0	4.6
16류	20,190.0	26,209.6	34,820.0	6.2
17류	14,567.4	39,536.1	32,909.3	9.5
18류	32,508.1	46,751.8	81,813.7	10.8
19류	27,057.0	58,722.9	83,792.1	13.4
20류	128,876.3	141,880.0	190,059.6	4.4
21류	159,546.5	175,953.5	404,170.8	10.9
22류	26,881.6	53,718.5	48,659.1	6.8
23류	38,222.4	109,736.6	281,164.7	24.8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미 FTA 협정대상 식품품목에 대한 수입 현황

-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협정대상 식품산업의 총 수입액은 2011년 약 5,487백만불이며, 2002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14.2% 증가.
- 품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13류(-3.1%)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증가. 2011년 기준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10류(37.5%), 02류(23.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다수 품목은 약 8%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1> 한·미 FTA 협정대상 식품산업 對미 수입액 (단위:천\$, %)

품목(HS Code)	2002	2007	2011	연평균증가율
식품품목 수입액 합계	1,660,614.7	2,629,605.1	5,487,964.2	14.2
01류	3,107.8	5,110.9	13,518.0	17.7
02류	729,460.5	339,019.5	1,283,593.5	6.5
03류	12,074.3	65,406.9	54,104.9	18.1
04류	26,780.6	77,384.0	177,915.0	23.4
05류	52,833.6	42,030.7	65,563.2	2.4
06류	236.9	732.6	827.1	14.9
07류	6,313.2	13,635.5	17,815.1	12.2
08류	117,216.6	205,751.3	393,038.3	14.4
09류	5,702.6	16,044.0	28,622.9	19.6
10류	128,644.9	1,029,378.4	2,059,908.8	36.1
11류	1,899.7	7,999.2	3,118.4	5.7
12류	12,851.3	18,709.2	31,339.5	10.4
13류	24,780.6	20,956.2	18,620.3	-3.1
14류	124.3	185.5	3,995.4	47.0
15류	69,590.1	93,365.4	86,004.1	2.4
16류	34,005.6	38,843.5	54,272.6	5.3
17류	14,566.3	39,536.1	32,891.3	9.5
18류	32,915.7	47,331.6	84,294.8	11.0
19류	27,057.1	58,722.9	83,792.1	13.4
20류	118,480.1	127,906.9	164,915.9	3.7
21류	165,595.8	177,571.8	411,326.5	10.6
22류	30,446.5	60,972.4	55,323.3	6.9
23류	45,930.6	143,010.3	363,163.1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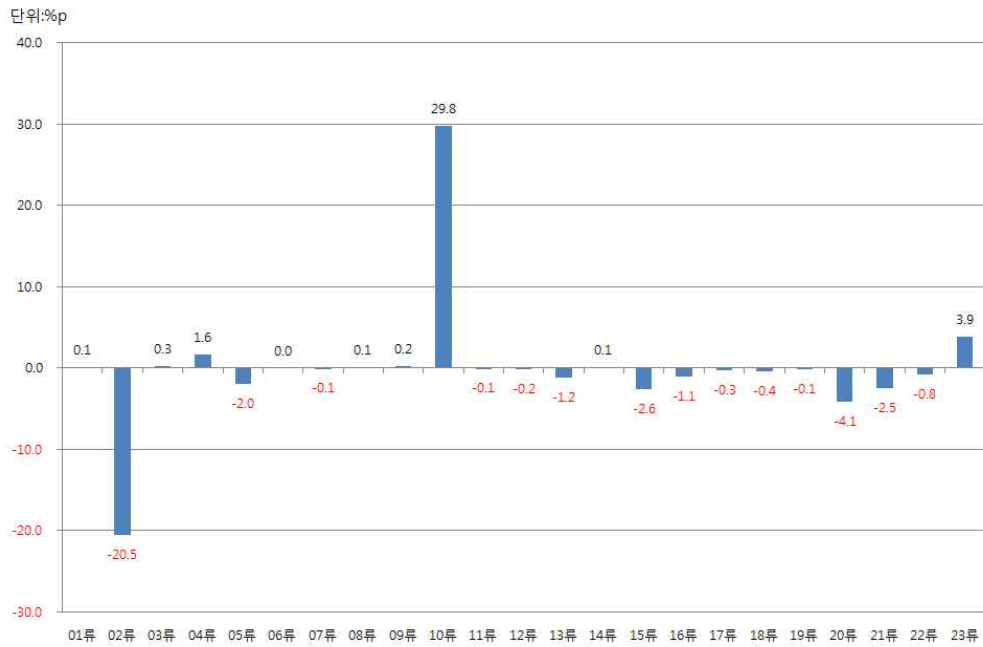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협정대상 품목의 비중차를 살펴보면, 비중차가 가장 낮은 산업은 02류 (-20.5%)이며, 이 제품을 제외한 20류(-4.1%), 15류(-2.6%), 21류(-2.5%), 05류 (2.0%)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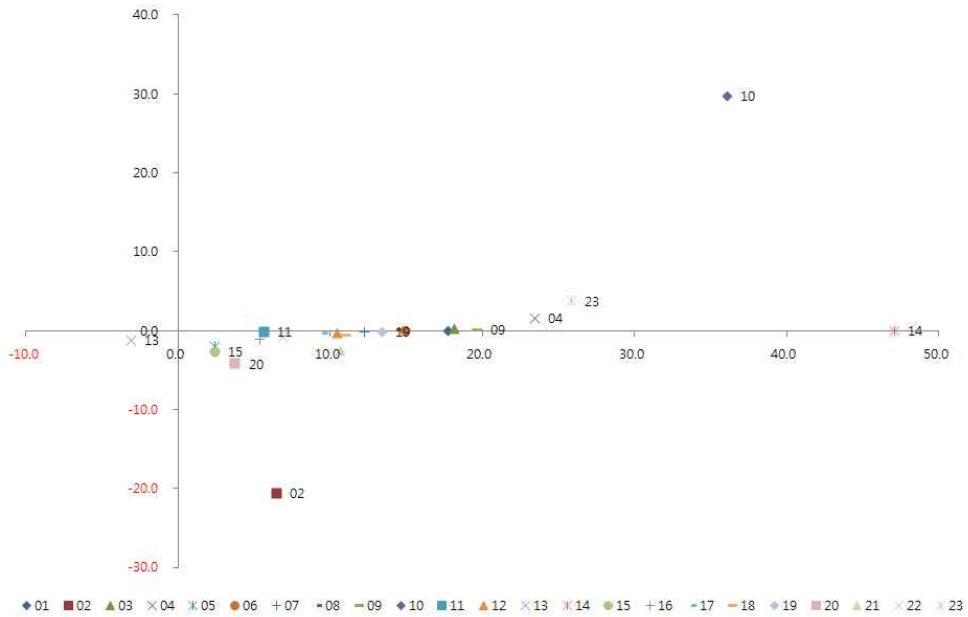
<표 3-12> 한국 협정대상 식품제품의 각 품목별 비중 및 비중차 (단위:%, %p)

품목(HS Code)	2002(A)	2007	2011(B)	비중차(B-A)
식품산업 합계	100.0	100.0	100.0	0.0
01류	0.2	0.2	0.2	0.1
02류	43.9	12.9	23.4	-20.5
03류	0.7	2.5	1.0	0.3
04류	1.6	2.9	3.2	1.6
05류	3.2	1.6	1.2	-2.0
06류	0.0	0.0	0.0	0.0
07류	0.4	0.5	0.3	-0.1
08류	7.1	7.8	7.2	0.1
09류	0.3	0.6	0.5	0.2
10류	7.7	39.1	37.5	29.8
11류	0.1	0.3	0.1	-0.1
12류	0.8	0.7	0.6	-0.2
13류	1.5	0.8	0.3	-1.2
14류	0.0	0.0	0.1	0.1
15류	4.2	3.6	1.6	-2.6
16류	2.0	1.5	1.0	-1.1
17류	0.9	1.5	0.6	-0.3
18류	2.0	1.8	1.5	-0.4
19류	1.6	2.2	1.5	-0.1
20류	7.1	4.9	3.0	-4.1
21류	10.0	6.8	7.5	-2.5
22류	1.8	2.3	1.0	-0.8
23류	2.8	5.4	6.6	3.9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3-3> 한국-미국 협정대상 품목 수입 비중차



<그림 3-4> 한국-미국 협정대상 품목의 연평균 증가율에 대한 비중차의 분산

제 2 절 전라북도 식품산업 수출입 구조

1. 전라북도 무역구조

1). 전라북도 산업의 무역구조

-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도는 약 64억불, 2011년도 상반기는 38억불 흑자를 달성함.
- 2009년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이 감소한 이래 2010년 들어 수출증가세 (전년대비 74% 증가)가 두드러짐.
- 2010년 무역수지 또한 전년대비 125%로 크게 증가함.

<표 3-13> 전라북도의 무역수지

(단위 : 천\$,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수출액	4,224,538	4,850,995	5,470,985	6,354,452	6,842,081	6,032,293	10,504,847
	증가율	47.4	14.8	12.8	16.1	7.7	-11.8	74.1
수입	수출액	2,522,398	2,456,326	2,547,563	3,063,108	4,103,871	3,193,849	4,133,681
	증가율	23.5	-2.6	3.7	20.2	34	-22.2	29.4
무역수지		1,702,140	2,394,669	2,923,422	3,291,344	2,738,209	2,838,444	6,371,166

- 전라북도의 對 미국 수출은 2010년 4억3천6백만불, 2011년도 상반기 수출액은 3억백만불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58.8%가 증가하여 회복세에 있음.
- 對 미국에 대한 전라북도의 수출점유율은 2010년 기준 對EU 수출액의 29%에 불과하여 점유율이 높지 않음.
- 하지만, 대 미국에 대한 전라북도의 수입액은 2010년 7억5천7백만불, 2011

년 상반기 5억9백만불로 수입의존도는 높은 편이며, 무역수지 또한 2008년부터 적자이며, 그 폭 또한 커지고 있어 미국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됨.

<표 3-14> 전라북도의 對 미국 무역수지

(단위 : 천\$,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액	수출액	605,109	626,247	748,070	602,301	531,702	299,306	435,484
	증가율	78.7	3.5	19.5	-19.5	-11.7	-43.7	45.5
수입액	수입액	364,797	320,675	409,372	512,191	1,043,673	528,356	756,614
	증가율	47.6	-12.1	27.7	25.1	103.8	-49.4	43.2
무역수지		240,312	305,572	338,698	90,110	-511,971	-229,050	-321,130

- 전라북도 총 수출액 중 對 미국 수출비중은 2011년 상반기 4.8%로 수출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는 낮지만, 수입비중은 20.0%로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음.
- 우리나라 수출액 중 對 미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10.1%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4.8%로 매우 낮음.
- 우리나라 수입액 중 對 미국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8.6%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20.0%로 매우 높음.

<표 3-15> 전라북도의 총 수출액 중 對 미국 수출입 비중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비중	14.3%	12.9%	13.7%	9.5%	7.8%	5.0%	4.1%
수입비중	14.5%	13.1%	16.1%	16.7%	25.4%	16.5%	18.3%

- 전라북도 수출액은 전국 수출액의 2.3% (2011년 상반기 기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 이전에 비해 0.6% 상승하였으며, 對 미국 수출비중은 2010년 0.9%, 2011년 상반기 1.1%로 매우 미미하여 2006년 이후 미국수출에 대한 전라북도의 기여도는 낮음.

<표 3-16> 한국 수출액 중 전라북도의 수출액 비중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對 세계 수출비중	1.7%	1.7%	1.7%	1.7%	1.6%	1.7%	2.3%
對 미국 수출비중	1.4%	1.5%	1.7%	1.3%	1.1%	0.8%	0.9%

2) 전라북도 對 미국 수출기업 현황

- 도 내 對 미국 주요 수출기업에는 식품기업이 42개 업체 (42%), 석유·화학기업이 36개 업체 (17.9%), 철강·금속기업이 23개 업체 (11.4%), 자동차·부품기업과 기계·부품기업이 각 22개 업체 (10.9%), 전기기기·부품기업과 섬유·의류기업이 각 16개 업체 (8%), 정밀화학원료기업이 6개 업체 (3%)가 분포함.
- 수출금액별로 기업분포를 살펴보면, 수출액 50만불 미만이 134개 업체로 전체기업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은 51개 업체로 24.9%를 차지하고 있음.
-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으로는 석유·화학산업 내 12개 기업, 기계·부품산업 내 9개 기업, 자동차·부품산업 내 6개 기업, 전기기기·부품산업과 섬유·의류산업 내 각각 5개 기업, 정밀화학원료산업과 철강·금속산업 내 각각 4개 기업, 식품산업 내 3개 기업이 분포함.

○ 전북은 음식료품업(식료품+음료)의 전국대비 비중은 높게 나타남. 특히 식료품의 전국 비중은 사업체 기준 6.3%, 종업원기준 7.4%로 나타나며, 음료업은 각각 9.9%와 9.8%로 높게 나타남.

○ 식료품과 음료가 전북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기준으로 각각 15.6%와 16.0% 그리고 종업원 기준으로 15.4%와 17.0%로 나타남.

<표 3-17> 전라북도 주요 수출기업의 수출액 분포

구 분	빈도/ 비율	수출금액 (단위: ~\$미만, \$이상)									전체	
		1만 미만	1만 ~5만	5만 ~10만	10만 ~50만	50만 ~100만	100만 ~500만	500만 ~1천만	1천만 ~1억	1억 이상		
범 주	자동차· 부품	빈도	6	2	2	3	3	3	2	1	0	22
		전체%	27.3	9.1	9.1	13.6	13.6	13.6	9.1	4.5	0.0	10.9
	정밀화 학원료	빈도	0	0	1	1	0	3	0	1	0	6
		전체%	0.0	0.0	16.7	16.7	0.0	50.0	0.0	16.7	0.0	3.0
	기계·부 품	빈도	5	1	2	3	2	5	3	1	0	22
		전체%	22.7	4.5	9.1	13.6	9.1	22.7	13.6	4.5	0.0	10.9
	석유·화 학	빈도	4	3	4	8	5	5	4	3	0	36
		전체%	11.1	8.3	11.1	22.2	13.9	13.9	11.1	8.3	0.0	17.9
	전기기 가·부품	빈도	5	1	3	1	1	3	2	0	0	16
		전체%	31.3	6.3	18.8	6.3	6.3	18.8	12.5	0.0	0.0	8.0
	선박	빈도	0	0	0	0	0	0	0	0	0	0
		전체%	0	0	0	0	0	0	0	0	0	0
	종아·제 품	빈도	2	0	0	1	0	1	1	0	0	5
		전체%	40.0	0.0	0.0	20.0	0.0	20.0	20.0	0.0	0.0	2.5
	섬유·의 류	빈도	0	3	0	5	3	2	2	1	0	16
		전체%	0.0	18.8	0.0	31.3	18.8	12.5	12.5	6.3	0.0	8.0
	철강·금 속	빈도	4	5	4	5	1	3	0	1	0	23
		전체%	17.4	21.7	17.4	21.7	4.3	13.0	0.0	4.3	0.0	11.4
	식품	빈도	8	16	4	10	1	3	0	0	0	42
전체%		19.0	38.1	9.5	23.8	2.4	7.1	0.0	0.0	0.0	20.9	
기타	빈도	4	7	0	1	0	0	1	0	0	13	
	전체%	30.8	53.8	0.0	7.7	0.0	0.0	7.7	0.0	0.0	6.5	
전 체	빈도	38	38	20	38	16	28	15	8	0	201	
	전체%	18.9	18.9	10.0	18.9	8.0	13.9	7.5	4.0	0.0	100.0	

2. 전라북도 식품산업 수출·입 현황

1) 전라북도 식품산업 수출 현황

(1) 전라북도 식품산업에 대한 총수출 현황

- 전라북도 식품산업 총 수출액은 154백만불이며(2011년 기준), 지난 10년간 18.8% 증가.
- 세부 품목별로는 09류(-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4류의 경우는 수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⁴⁾,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품목은 04류(52.0%)와 05류(51.2%)임.

<표 3-18> 전라북도 식품산업 총 수출액

(단위:천\$, %)

품목(HS Code)	2002	2007	2011	연평균증가율
총 수출액	1,943,082.7	6,354,452.1	12,818,350.3	23.3
식품품목 수출액 합계	35,371	72,267	154,468	17.8
01류	0	0	0	0.0
02류	2,165	1,341	9,335	17.6
03류	384	935	2,481	23.0
04류	0	1,527	1,653	52.0
05류	143	137	5,904	51.2
06류	1,022	5,966	17,410	37.0
07류	8,163	9,266	9,830	2.1
08류	2,229	6,345	6,852	13.3
09류	93	94	86	-0.9
10류	0	589	964	13.1

자료: 한국무역협회

4) 14류는 간헐적으로 미세한 수출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2002년에 6천달러, 2003년에 8천달러의 수출과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5천달러의 수출이 있었으나 나머지 년도에는 수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8> 전라북도 식품산업 총 수출액(계속)

(단위:천\$,%)

품목(HS Code)	2002	2007	2011	연평균증가율
총 수출액	1,943,082.7	6,354,452.1	12,818,350.3	23.3
식품품목 수출액 합계	35,371	72,267	154,468	17.8
11류	9	265	93	29.6
12류	2,383	8,697	22,208	28.1
13류	240	2,475	407	6.0
14류	6	0	0	-100.0
15류	22	1,090	475	40.7
16류	484	954	2,666	20.9
17류	87	3,904	278	13.8
18류	86	187	247	12.4
19류	8,804	10,068	22,685	11.1
20류	282	2,593	10,634	49.7
21류	4,865	8,951	27,023	21.0
22류	3,672	6,717	12,936	15.0
23류	232	166	301	2.9

자료: 한국무역협회

(2) 전라북도 식품품목에 대한 對미 수출 현황

- 2011년 기준 전라북도 對미 총 수출액은 627백만불이며(전국대비 12.4%), 이 중 식품산업 수출액은 13백만불임(전북-미국 수출액 중에서 식품품목의 수출액 2.2%).
- 지난 10년간 식품산업의 수출액은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對미 총 수출액대비 식품산업 수출액 비중은 지난 10년간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 살펴보면, 감소품목은 10류(58.8%), 17류(-25.1%), 16류(-16.7%), 03류(-11.5%)로 나타났으며, 04류와 23류는 최근들어 수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01류, 02류, 05류, 14류, 18류는 수출을 전혀 하지 않았음.

<표 3-19> 전라북도 식품산업 對미 수출액

(단위:천\$, %)

품목(HS Code)	2002	2007	2011	연평균증가율
對미 총 수출액	219,106	602,301	627,009	12.4
식품산업 합계	4,494	8,548	13,741	13.2
01류	0.0	0.0	0.0	0.0
02류	0.0	0.0	0.0	0.0
03류	28.5	0.0	9.5	-11.5
04류	0.0	0.0	0.0	-100.0
05류	0.0	0.0	0.0	0.0
06류	0.0	0.0	71.0	0.0
07류	12.9	31.1	32.9	11.0
08류	447.6	1,703.5	1,081.8	10.3
09류	14.3	0.0	25.3	6.5
10류	0.0	256.9	7.4	-58.8
11류	9.1	0.0	7.1	-2.8
12류	356.6	10.3	596.7	5.9
13류	58.4	0.0	130.1	9.3
14류	0.0	0.0	0.0	0.0
15류	0.0	19.4	203.7	80.0
16류	0.0	0.0	9.7	-16.7
17류	0.0	4.4	3.0	-25.1
18류	0.0	0.0	0.0	0.0
19류	444.2	810.4	3,275.1	24.9
20류	83.9	41.4	1,389.4	36.6
21류	1,619.3	2,498.2	3,974.9	10.5
22류	1,419.4	3,172.4	2,924.0	8.4
23류	0.0	0.0	0.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3) 한·미 FTA 협정대상 전라북도 식품품목에 대한 수출 현황

- 전라북도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협정대상 식품산업의 총 수출액은 2011년 약 12백만불이며, 2002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14.1% 증가.
- 구체적으로 감소품목은 10류(-66.3%), 17류(-25.1%), 12류(-8.4%), 11류(-2.8%)임.

<표 3-20> 전라북도 식품산업 대비 수출액

(단위:천\$, %)

품목(HS Code)	2002	2007	2011	연평균증가율
식품산업 합계	3,666.8	6,976.0	12,030.7	14.1
01류	0.0	0.0	0.0	0.0
02류	0.0	0.0	0.0	0.0
03류	1.9	0.0	6.8	15.3
04류	0.0	0.0	0.0	-100.0
05류	0.0	0.0	0.0	0.0
06류	0.0	0.0	71.0	59,082.5
07류	12.9	31.1	32.9	11.0
08류	0.0	131.5	0.0	-100.0
09류	0.0	0.0	19.9	28.2
10류	0.0	256.9	3.3	-66.3
11류	9.1	0.0	7.1	-2.8
12류	17.7	10.3	8.1	-8.4
13류	58.4	0.0	130.1	9.3
14류	0.0	0.0	0.0	0.0
15류	0.0	19.4	203.7	80.0
16류	0.0	0.0	0.0	-100.0
17류	0.0	4.4	3.0	-25.1
18류	0.0	0.0	0.0	0.0
19류	444.2	810.4	3,275.1	24.9
20류	83.9	41.4	1,370.7	36.4
21류	1,619.3	2,498.2	3,974.9	10.5
22류	1,419.4	3,172.4	2,924.0	8.4
23류	0.0	0.0	0.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 전체 식품제품에 대한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2011년 기준), 21류(33.0%), 19류(27.2%), 22류(24.3%), 20류(11.4%)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그 외 품목에서는 약 1% 미만의 비중을 보임.5)
-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22류(-14.4%), 21류(-11.1%), 13류(-0.5%), 12류(-0.4%), 11류(-0.2%), 07류(-0.1%)의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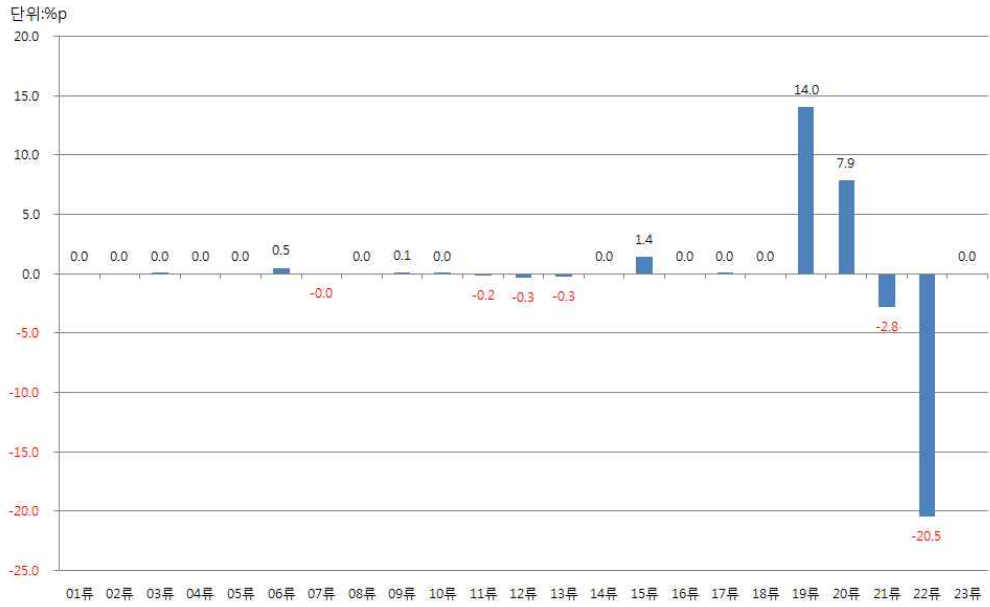
5) 이러한 제품 중 15류(1.7%)와 13류(1.1%)는 1%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1> 한국 협정대상 식품제품의 각 품목별 비중 및 비중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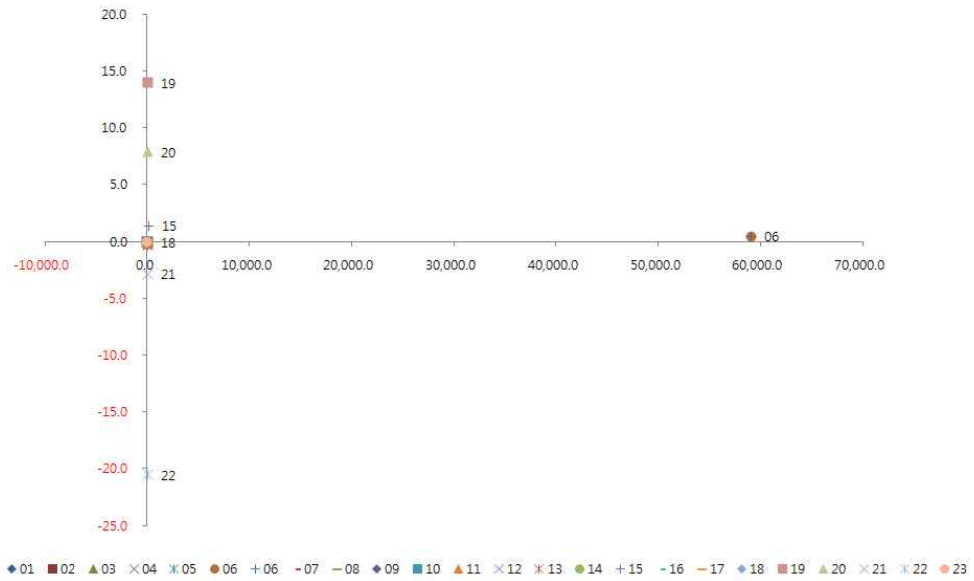
(단위:%, %p)

품목(HS Code)	2002(A)	2007	2011(B)	비중차(B-A)
식품산업 합계	100.0	100.0	100.0	0.0
01류	0.0	0.0	0.0	0.0
02류	0.0	0.0	0.0	0.0
03류	0.1	0.0	0.1	0.0
04류	0.0	0.0	0.0	0.0
05류	0.0	0.0	0.0	0.0
06류	0.0	0.0	0.6	0.6
07류	0.4	0.4	0.3	-0.1
08류	0.0	1.9	0.0	0.0
09류	0.0	0.0	0.2	0.2
10류	0.0	3.7	0.0	0.0
11류	0.2	0.0	0.1	-0.2
12류	0.5	0.1	0.1	-0.4
13류	1.6	0.0	1.1	-0.5
14류	0.0	0.0	0.0	0.0
15류	0.0	0.3	1.7	1.7
16류	0.0	0.0	0.0	0.0
17류	0.0	0.1	0.0	0.0
18류	0.0	0.0	0.0	0.0
19류	12.1	11.6	27.2	15.1
20류	2.3	0.6	11.4	9.1
21류	44.2	35.8	33.0	-11.1
22류	38.7	45.5	24.3	-14.4
23류	0.0	0.0	0.0	0.0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3-5> 전북-미국 협정대상 품목 수출 비중차



<그림 3-6> 전북-미국 협정대상 품목의 연평균 증가율에 대한 비중차의 분산

2) 식품산업 수입 현황

(1) 식품품목에 대한 총 수입 현황

- 전라북도 식품산업 총 수입액은 5,222백만불이며(2011년 기준), 지난 10년간 14.0% 증가.
- 세부 품목별로는 11류(-9.3%), 09류(-4.4%) 그리고 05류(-0.3%)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품목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2> 전북 식품산업 총 수입액

(단위:천\$, %)

품목(HS Code)	2002	2007	2011	연평균증가율
총 수입액	152,126,152.7	356,845,733.3	524,413,089.9	14.7
식품산업 수입액 합계	1,599,851	3,063,108	5,222,386	14.0
01류	33,926	52,097	76,047	9.4
02류	1,266,785	2,015,527	3,454,807	11.8
03류	1,676,065	2,628,610	3,413,904	8.2
04류	154,653	371,018	763,244	19.4
05류	104,894	141,999	245,387	9.9
06류	34,281	67,905	62,393	6.9
07류	134,867	372,869	682,612	19.7
08류	267,929	673,983	1,054,276	16.4
09류	103,638	253,456	718,546	24.0
10류	1,604,691	2,826,472	4,625,865	12.5
11류	82,015	177,175	263,414	13.8
12류	630,144	954,897	1,448,260	9.7
13류	73,223	102,150	145,983	8.0
14류	11,656	17,514	28,376	10.4
15류	328,499	790,599	1,463,663	18.1
16류	185,667	432,868	596,102	13.8
17류	413,248	668,404	1,469,237	15.1
18류	120,837	212,330	339,470	12.2
19류	149,687	325,774	457,993	13.2
20류	317,154	619,248	781,522	10.5
21류	413,679	612,084	1,156,542	12.1
22류	418,609	655,583	732,489	6.4
23류	594,962	1,165,646	1,781,653	13.0

자료: 한국무역협회

(2) 식품품목에 대한 對미 수입 현황

- 2011년 기준 전라북도 對미 총 수입액은 1,034백만불이며 이중 식품산업 수입액은 386백만불임(지난 10년간 식품산업의 수입액은 52.9% 증가, 對미 총 수출액대비 식품산업 수출액 비중은 지난 10년간 33.5%p 증가)
-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11류(-60.9%), 22류(-45.1%), 20류(-19.0%), 05류(-11.7%), 17류(-1.2%)가 감소. 특히 03류, 05류, 의 경우는 최근에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류의 경우 2003년 이후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증가품목은 19류(125.1%), 02류(111.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3> 전라북도 식품산업 對미 수입액

(단위:천\$, %)

품목(HS Code)	2002	2007	2011	연평균증가율
對미 총 수입액	219,863	512,191	1,034,050	18.8
식품산업 합계	8,474.9	177,549.2	386,423.4	52.9
01류	960.9	1,192.8	1,197.8	2.5
02류	0.0	767.5	35,187.0	111.9
03류	236.6	0.4	0.0	-100.0
04류	21.6	1,252.0	1,358.9	58.4
05류	30.8	191.2	0.0	-100.0
06류	0.0	0.0	11.6	-11.7
07류	430.7	613.3	526.4	2.3
08류	273.9	600.4	905.3	14.2
09류	0.0	0.3	7.2	72.0
10류	3,811.8	157,298.6	280,293.7	61.2
11류	0.0	0.0	0.0	-60.9
12류	2,275.8	7,707.8	11,374.7	19.6
13류	0.0	0.0	0.0	0.0
14류	2.9	0.0	0.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1류의 경우 표기 단위의 문제로 인해 숫자가 0.0으로 보이는 것임. 따라서 증가율이 나타날 수 있음

<표 3-23> 전라북도 식품산업 대(對)미 수입액(계속)

(단위:천\$, %)

품목(HS Code)	2002	2007	2011	연평균증가율
對미 총 수입액	219,863	512,191	1,034,050	18.8
식품산업 합계	8,474.9	177,549.2	386,423.4	52.9
15류	622.8	5,899.7	9,344.5	35.1
16류	54.0	1,254.6	3,244.8	57.6
17류	434.2	502.9	391.2	-1.2
18류	0.0	0.1	84.0	26.6
19류	0.0	15.6	44.6	125.1
20류	33.1	0.4	5.0	-19.0
21류	33.7	344.9	2,031.4	57.7
22류	0.0	0.2	5.1	-45.1
23류	212.9	1,099.2	41,607.9	79.7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미 FTA 협정대상 식품품목에 대한 수입 현황

- 전라북도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협정대상 식품산업의 총 수입액은 2011년 약 378백만불이며, 2002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53.8% 증가.
- 품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13류(-98.9%), 11류(-60.9%), 22류(-45.1%), 15류(-41.6%), 20류(-13.0%), 06류(-11.7%), 17류(-0.9%)의 순으로 감소 특히 05류, 14류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증가품목의 경우는 18류(197.2%), 19류(125.1%), 02류(111.9%)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3-24> 전복 식품산업 협정대상 품목 對미 수입액

(단위:천\$, %)

품목(HS Code)	2002	2007	2011	연평균증가율
식품품목 수입액 합계	7,872.0	172,319.5	378,213.1	53.8
01류	929.1	980.3	1,162.1	2.5
02류	0.0	767.5	35,187.0	111.9
03류	0.0	0.0	10.8	29.9
04류	21.6	1,252.0	1,358.9	58.4
05류	30.8	191.2	0.0	-100.0
06류	0.0	0.0	11.6	-11.7
07류	430.7	613.3	526.4	2.3
08류	252.7	600.4	905.3	15.2
09류	0.0	0.3	6.9	71.1
10류	3,004.9	157,298.6	280,293.7	65.5
11류	0.0	0.0	0.0	-60.9
12류	2,275.8	6,646.0	11,336.3	19.5
13류	0.0	0.0	0.0	-98.9
14류	2.9	0.0	0.0	-100.0
15류	240.6	809.7	1.9	-41.6
16류	0.0	1,197.0	3,244.8	28.3
17류	425.6	502.9	391.2	-0.9
18류	0.0	0.1	84.0	197.2
19류	0.0	15.6	44.6	125.1
20류	10.7	0.4	3.0	-13.0
21류	33.7	344.9	2,031.4	57.7
22류	0.0	0.2	5.1	-45.1
23류	212.9	1,099.2	41,607.9	79.7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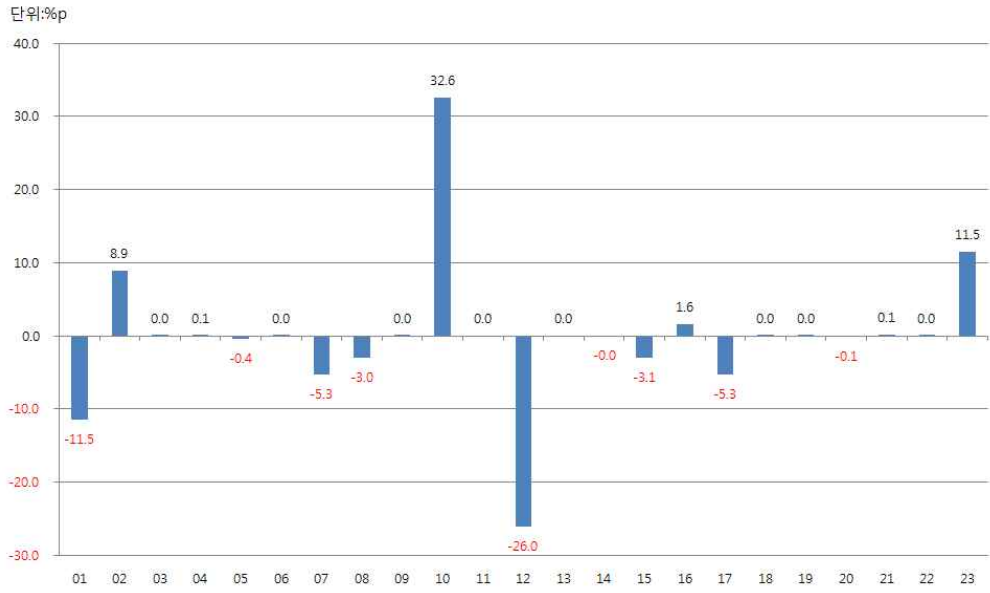
- 협정대상 전체 식품제품에 대한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2011년 기준), 10류(74.1%), 23류(11.0%)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외 02류(9.3%)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는 1%미만의 비중을 보임.
- 비중차를 살펴보면, 12류(-25.9%p), 01류(-11.5%p), 07류 및 17류(-5.3%p), 15류(-3.1%p), 08류(-3.0%p), 05류(-0.4%p), 20류(-0.1%p)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5> 전북 협정대상 식품제품의 각 품목별 비중 및 비중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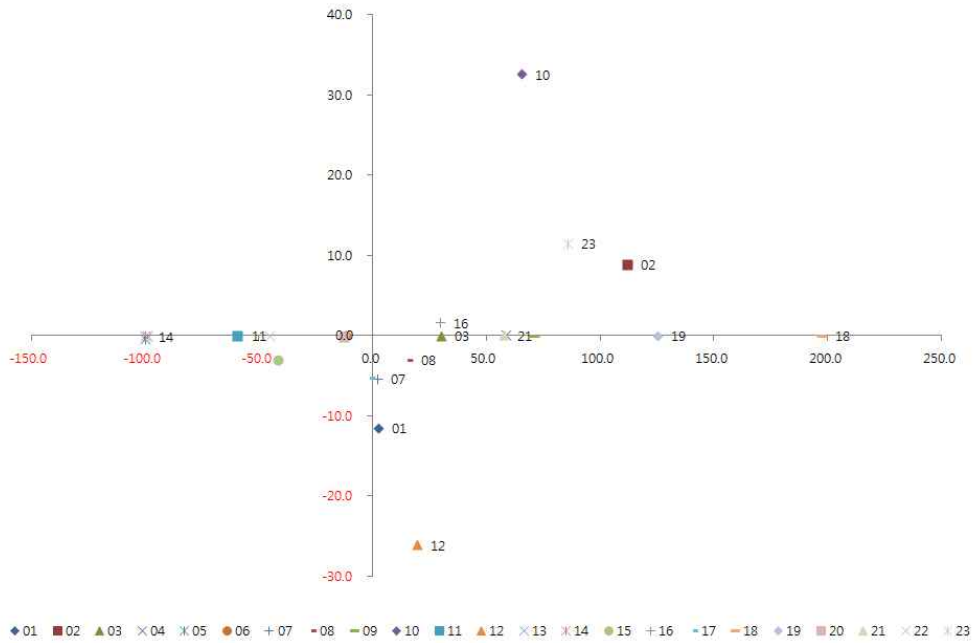
(단위:%, %p)

품목(HS Code)	2002(A)	2007	2011(B)	비중차(B-A)
식품산업 합계	100.0	100.0	100.0	0.0
01류	11.8	0.6	0.3	-11.5
02류	0.0	0.4	9.3	9.3
03류	0.0	0.0	0.0	0.0
04류	0.3	0.7	0.4	0.1
05류	0.4	0.1	0.0	-0.4
06류	0.0	0.0	0.0	0.0
07류	5.5	0.4	0.1	-5.3
08류	3.2	0.3	0.2	-3.0
09류	0.0	0.0	0.0	0.0
10류	38.2	91.3	74.1	35.9
11류	0.0	0.0	0.0	0.0
12류	28.9	3.9	3.0	-25.9
13류	0.0	0.0	0.0	0.0
14류	0.0	0.0	0.0	-0.0
15류	3.1	0.5	0.0	-3.1
16류	0.0	0.7	0.9	0.9
17류	5.4	0.3	0.1	-5.3
18류	0.0	0.0	0.0	0.0
19류	0.0	0.0	0.0	0.0
20류	0.1	0.0	0.0	-0.1
21류	0.4	0.2	0.5	0.1
22류	0.0	0.0	0.0	0.0
23류	2.7	0.6	11.0	8.3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3-7> 전라북도-미국 협정대상 식품품목의 비중차



<그림 3-8> 한국-미국 협정대상 품목의 연평균 증가율에 대한 비중차의 분산

제 3 절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수출경쟁력

- 우리나라 식품가공산업의 GTAP 분석 결과, 한미 FTA의 관세 인하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됨(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GTAP 모형은 전통적인 무역이론,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완전경쟁 등의 이론에 기초하여 생산, 소비, 지출 등의 대내경제와 수출, 수입 등의 대외경제를 포괄하는 일반균형모형이며, 대상국의 산업연관표, 국가간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경제주체별, 산업별, 경제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대미 수출비중이 취약한 전북의 경우, 식품가공산업에 있어 기존 자료에 따른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한미 FTA에 따른 관세혜택으로 인해 식품가공기업의 경우 원료수입가격 인하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북 식품가공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결과, 대미 무역특화지수(TSI)는 0.21로 수출특화 상태지만,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0.15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미국보다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TSI에 대한 수식은 아래 (식 1)과 같으며, RCA에 대한 수식은 아래 (식 2)와 같음.

$$TSI_i = \frac{X_i - M_i}{X_i + M_i}, \quad \dots(\text{식 1})$$

TSI_i : i상품의 무역특화 지수,

X_i : i상품의 수출액,

M_i : i상품의 수입액.

$$RCA_{zw}^i = \frac{X_z^i / X_z}{M_w^i / M_w} (z = 1 \dots n) , \quad \dots(\text{식 } 2)$$

RCA_{zw}^i : 경쟁국 섬유의 세계시장내 현시비교우위 지수

M_w : 세계의 총수입액

M_w^i : 세계의 섬유 총 수입액

X_z : 경쟁국의 총수출액

X_z^i : 경쟁국의 섬유수출액

- * TSI는 1에서 -1의 범위에서 0보다 크면 수출특화, 반대일 경우 수입특화를 나타냄
- * RCA는 -1에서 무한대 값을 가지는 지수로 1보다 크면 비교우위, 작으면 비교 열위를 1이면 상호비교우위를 의미함

- 식품가공산업은 향후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란 의미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전북 식품가공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화와 기술경쟁력 확보 없이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임.

제 4 절 요약

- 전라북도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협정대상 식품산업의 총 수출액은 2011년 약 12백만불이며, 2002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14.1% 증가하였음. 구체적으로 감소품목은 10류(-66.3%), 17류(-25.1%), 12류(-8.4%), 11류(-2.8%)임.
- 전체 식품제품에 대한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2011년 기준), 21류(33.0%), 19류(27.2%), 22류(24.3%), 20류(11.4%)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그 외 품목에서는 약 1% 미만의 비중을 보임.
-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22류(-14.4%), 21류(-11.1%), 13류(-0.5%), 12류(-0.4%), 11류(-0.2%), 07류(-0.1%)의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협정대상 식품산업의 총 수입액은 2011년 약 378백만불이며, 2002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53.8% 증가하였음
- 품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13류(-98.9%), 11류(-60.9%), 22류(-45.1%), 15류(-41.6%), 20류(-13.0%), 06류(-11.7%), 17류(-0.9%)의 순으로 감소 특히 05류, 14류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증가품목의 경우는 18류(197.2%), 19류(125.1%), 02류(111.9%)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협정대상 전체 식품제품에 대한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2011년 기준), 10류(74.1%), 23류(11.0%)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외 02류(9.3%)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는 1%미만의 비중을 보임.
- 비중차를 살펴보면, 12류(-25.9%p), 01류(-11.5%p), 07류 및 17류(-5.3%p), 15류(-3.1%p), 08류(-3.0%p), 05류(-0.4%p), 20류(-0.1%p)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미 수출비중이 취약한 전북의 경우, 식품가공산업에 있어 기존 자료에

따른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한미 FTA에 따른 관세혜택으로 인해 식품가공기업의 경우 원료수입가격 인하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북 식품가공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결과, 대미 무역특화지수(TSI)는 0.21로 수출특화 상태지만,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0.15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미국보다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수출경쟁력 지수로 전북의 식품가공산업은 향후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란 의미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함. 따라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전북 식품가공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화와 기술경쟁력 확보 없이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임

제 4 장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제 1 절 한미 FTA에 따른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의 SWOT 분석
- 제 2 절
- 제 3 절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전북 식품가공산업 정책방향 설정
- 제 4 절 요약

제4장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1절 한미 FTA에 따른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SWOT 분석

1. 식품가공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및 전망

- 국내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식품산업 성장률 예상.
 - 국제화 및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가공식품의 생산, 소비 및 외식이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화가 진행되어 식품가공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 R&D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며, 지역 특산농산물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체들만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됨
- 식품 소비 구조의 전환방향 관련 업종 높은 성장률 전망.
 - (육가공, 유가공, 수산가공, 과채가공, 비알콜성 및 저농도 알콜음료).
 -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기능성 식품 등의 개발이 촉진되어 식품가공산업의 부가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노인식과 같은 실버식품이 확대되고, 전문화 및 특성화 추세에 따라 특수영양식 분야 등의 확대 예상
- 한국의 전통음식 (고추장,된장,김치,식혜 등) 고성장 전망.
- 한식(삼계탕, 비빔밥 등) 외식시장 국내외 확대 전망.

2. 한미 FTA에 따른 식품가공산업 전망

- 한미 FTA 농산품 협상 결과를 요약하면서 국내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해 양허하고, 쌀 등 주요 민

감품목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고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미국은 우리나라 식품수입의 약 25%이상을 차지하고 수출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교역국인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함.
- 식품분야는 전반적으로 현행 관세수준이 신선 농산물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음.
- 식품분야가 FTA에 의해 영향이 적을 것이란 예측은 국내 식품산업의 수준이 선진국에 못지않게 발전했다는 점과 식품의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이 어렵다는 유통상의 특성이 반영된 것임.
- 또한 미국산의 수입량이 증가하더라도 국내 생산량을 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의 수입량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됨.
- 기존에 제시된 한미 FTA로 시장개방이 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산업은 제과, 전분당, 간장, 설탕, 대두유 등이 대표적임.
- 제과산업의 경우 과자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스니커즈, 프링글스, 허쉬 등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이 현재와 같이 중소 유통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국내에 본격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직접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전분당산업의 경우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분당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원료 산지이기 때문임. 특히 ADM, 카길 등 초거기업들과의 경쟁에 있어 전분당 산업의 핵심 경쟁요소인 원료조달과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열세에 있는 국내 전분당기업들은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임.
- 간장은 양국간의 무역증진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와는 달리 미국에 투자해 진출해 있는 일본간장의 한국시장 잠식이 유발될 가능성이 큼. 일본간장은

미국 내에서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올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미국산 간장은 일본 기업의 기술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양조간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 간장과 품질은 비슷한 수준임.

- 미국의 설탕산업은 사탕수수를 생산해 원당과 설탕을 동시에 생산하는 일원화된 산업구조로 거대 자본과 연결되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국내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설탕산업은 급속하게 몰락할 가능성이 있음. 대부분의 선진국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자국의 설탕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 국내 대두가공산업은 최소한의 시장확보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저가의 외국산 대두유 가격에 연동해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한미 FTA 결과 관세철폐로 대두유의 수입이 가속화 될 경우 국내 대두가공업의 침체는 대두박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배합사료업계 및 양축농가의 피해가 우려됨.
- 건강기능식품, 주류 분야도 우리보다 기술적 우위 및 제품 선호도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적은 원료를 이용한 가공식품도 가격차이에 의한 영향이 예상됨.
- 반면에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김치 절임식품, 인삼제품류는 식품의 기호성으로 볼 때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며, 나머지 식품들의 경우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식품산업 전반으로 보면 한미FTA로 농수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원료값이 떨어지고 안정적인 조달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식품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3.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전북 식품가공산업 SWOT 분석

- 앞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전북 식품가공산업의 SWOT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강 점	단 점
청정환경 국내 전통식품 경쟁력 발효식품 등 관련 품목 다양 한국 식품에 대한 호의적 인식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한 낮은 가격경쟁력 체계적인 수출 및 R&D 투자전략 미흡 원자재 가격 상승 많은 영세중소기업 낮은 식품가공산업 인지도
기 회	위 기
재미 한인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 한류 확산에 따른 이미지 제고 LOHAS에 걸맞는 한국의 식문화 고품질 식품 수요 증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미국 가공식품의 품질 경쟁력 및 인지도 수입선의 다변화 낮은 정보화(정보 접근성) 각종 인증비용 등으로 수출비용 상승 원료수급의 불안정

제2절 대미 먹거리 수출 전략 및 유망 품목(KITA, 2011)

-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의 가공식품은 미국의 탄탄한 교포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수출기상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탄탄한 교포시장이라는 기반과 한식 세계화라는 트렌드와 맞물려 FTA가 우리 먹거리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대미 먹거리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임.
-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최근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정리한 것에 따르면 라면, 인삼·홍삼, 고추장·된장, 막걸리는 수출 규모를 증시해 전략품목으로 꼽혔고 버섯, 고춧가루, 음료, 김치,

발효주는 성장성이 중시되는 유망품목으로 분류되었음.

- 1차 상품과 가공품 등 먹거리 수출은 3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교포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최근 한류와 이번 FTA를 통해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김, 배, 라면 등을 중심으로 비스킷류, 고추장·된장, 막걸리, 홍삼, 간장 등이 FTA 관세 철폐를 바탕으로 대미 수출을 주도할 전략품목으로 분류되었음.
 - 라면 등 면류(6.4%), 고추장·된장 등 장류(6.4%), 김 등 조제식품(6.4%) 등은 6% 이상의 높은 관세가 철폐돼 FTA 효과가 기대됨.
 - 배(kg당 03%), 비스킷류(4.5%), 수프·죽(3.2%), 막걸리(리터당 3센트), 간장(3%) 등도 FTA 발효 시 즉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제조담배(kg당 1.05달러+2.3%), 굴(4.7%) 등도 주요 대미먹거리 수출품이지만 양허 스케줄이 각각 7년 철폐, 10년 철폐로 돼 있어 FTA 효과는 중장기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임.
- 수출규모는 작지만 버섯, 고추가루, 빙과류, 사탕, 빵, 재료, 김치 등은 최근 수출 증가세와 높은 관세 철폐로 FTA 수출과 관련해 유망품목으로 선정되었음.
 - 버섯은 'kg당 8.8센트+20%', 빙과류는 'kg당 50.2센트+17.0%' 또는 20.0%, 김치는 11.2%, 사탕은 5.6%, 빵 제조용 재료는 8.5%, 고춧가루 등 고추류는 kg당 5.0센트의 관세가 발효 이후에 조기 철폐됨.
 - 아이스크림을 제외한 빙과류의 경우엔 발효년도에 따라 기준 물량이 있어 물량 이내의 수입품은 무관세로, 물량 초과 수입품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가고 점차 무관세 물량이 확대되다 발효 10년차엔 물량 제한이 없이 관세가 철폐됨.
 - 커피제조품이나 참치, 인조꿀 등은 최근 수출이 증가 추세이나 관세 철폐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FTA 효과가 중장기에 걸쳐 나타날 전망이다.

<표 4-1> 대미 먹거리 수출 전략품목

HS코드	품명(略)	분류	미국의 對韓수입 (백만 달러)		관세율 (%)	양허기 간
			'10 년	'11년 1~7월		
21069099	기타 조제식료품(통조림 또는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기타 조제 식품 (김 등)	29.8	13.9	6.4	즉시철폐
08082040	배 및 마르멜로(...7월 1일부터 다음에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반입된 것...)...(略)	배	23.0	4.7	0.3 센트/kg	즉시철폐
20089990	기타 과일 및 기타 식물의 기타 식용부분(과육과 혼합물 제외...)...(略)	기타농산가공품 (과실, 견과등의 조제또는저장품)	21.1	18.2	6.0	즉시철폐
19023000	기타 파스타	면류(라면 등)	18.6	11.7	6.4	즉시철폐
19021940	기타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거나...)...(略)	면류(국수 등)	12.0	9.1	6.4	즉시철폐
19059090	베이커리 제품(성찬용 웨이퍼...라이스페이퍼...)...(略)	비스킷, 쿠키, 크래커, 파이 등	8.1	4.8	4.5	즉시철폐
21039090	소스와 그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고추장, 된장 및 기타소스류	7.9	5.4	6.4	즉시철폐
21041000	수프, 브로드와 그 조제품	기타 농산가공품 (수프, 죽 등)	6.9	4.9	3.2	즉시철폐
19019090	조제식료품(분, 조분, 전분...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略)	조제식료품 (분, 조분, 전분 등)	4.9	2.2	6.4	즉시철폐
22060045	청주 또는 사케	주류(막걸리 등)	3.7	1.9	3 센트/liter	즉시철폐
13021940	인삼:... (양귀비줄기 엑스는 제외한다)... (略)	인삼, 홍삼 (엑기스 등)	3.4	3.9	1.0	즉시철폐
22021000	물(광천수와 탄산수...)...(略)	물 (설탕, 감미료 첨가)	3.3	2.1	0.2 센트/liter	즉시철폐
21031000	간장	간장	3.0	1.8	3.0	즉시철폐
24022080	곶련(담배를 함유...)...(略)	제조 담배	26.9	21.2	1.05달러/ kg+2.3%	7년철폐
16059050	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으로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굴	7.5	4.4	4.7	10년철폐
21069097	기타 조제식료품...(略)	기타 조제식품	3.1	5.2	28.8센트/kg +8.5%	10년철폐

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C

주1 : HS코드는 미국의 HS코드(2011년) 8단위 기준

주2 : 품명 및 분류는 기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주3 : 양허기간의 *표시는 한미 FTA 협정문 발표 이후 HS코드가 변경된 것으로 확정 고시가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양허 스케줄에 대해 연구에 용이하도록 판단하여 명시

주4 : 음영은 관세 철폐 효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품목

<표 4-2> 대미 먹거리 수출 유망품목

HS코드	품명(略)	분류	미국의 對韓수입 (백만 달러)		관세율 (%)	양허기 간
			'10년	'11년 1~7월		
20098080	단일채소의 주스 (토마토 제외...)	음료	3.0	2.8	0.2 센트/liter	즉시철폐
19041000	조제식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팡창 또는 볶아...)(略)	곡류가공품	3.0	2.0	1.1	즉시철폐
13023900	식물성 생산품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略)	식물성액즙	2.7	1.9	3.2	즉시철폐
21050040	아이스크림을 제외한 빙과류(...유제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略)	빙과류(아이 스크림 제외)	2.3	0.3	50.2 센트/kg +17%	즉시철폐 or 10년철폐
19049001	곡물(옥수수 이외...) 또는 기타(...조분이 아닌 것...)(略)	곡류가공품	2.3	1.8	14.0	5년철폐
11010000	밀 또는 메슬린 가루	곡분 (밀가루 등)	2.3	1.6	0.7 센트/kg	즉시철폐
19012080	베이커리 제품용 혼합물...(略)	빵 제조용 재료	2.1	1.8	8.5	5년철폐
09042076	고추류(캡시쿰속의 열매, 분쇄한 것...)(略)	고춧가루 등	1.9	0.9	5.0 센트/kg	즉시철폐
17049035	판매용 설탕과자 또는 스위트미트(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略)	사탕	1.7	1.0	5.6	즉시철폐
07095990	기타	버섯류 (큰타리,팽이 등)	1.4	0.9	8.8 센트/kg +20%	5년철폐*
07095101	아가리쿠스속의 버섯(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버섯류 (주름버섯 등)	1.4	0.1	8.8 센트/kg +20%	5년철폐
20059997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	김치 등	1.4	1.0	11.2	즉시철폐*
19022000	속을 채운 파스타...(略)	면류	0.8	1.0	6.4	즉시철폐
07129085	기타 채소류 및 채소류 혼합물(건조한 것...)(略)	기타채소류	0.8	0.3	8.3	즉시철폐
22060090	발효주(포도주..제외)...(略)	주류 (발효주 등)	0.6	0.6	4.2 센트/liter	즉시철폐

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

주1 : HS코드는 미국의 HS코드(2011년) 8단위 기준

주2 : 품명 및 분류는 기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주3 : 양허기간의 *표시는 한미 FTA 협정문 발표 이후 HS코드가 변경된 것으로 확정 고시가 발
표되지 않은 관계로 양허 스케줄에 대해 연구에 용이하도록 판단하여 명시

주4 : 음영은 관세 철폐 효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품목

<표 4-2> 대미 먹거리 수출 유망품목(계속)

HS코드	품명(略)	분류	미국의 對韓수입 (백만 달러)		관세율 (%)	양허기 간
			'10년	'11년 1~7월		
11041990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보리 또는 귀리의 것을 제외한다)	곡분	0.6	0.6	0.45 센트/kg	즉시철폐
21050010	아이스크림(코코아 함유...여부 불문)...(略)	빙과류 (아이스크림)	0.5	0.3	20.0	5년철폐
21011258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略)	커피조제품	3.0	3.0	30.5 센트/kg +8.5%	10년철폐
16041430	다랑어 및 가다랑어(기름에 담그지 아니한 것...)(略)	참치(기름담금 아닌 것)	0.9	0.3	12.5	10년차 무관세
17029090	당류와 당시럽 및 당을 포함한 물품...(略)	인조꿀, 천연당류 등	0.5	0.2	5.1	10년철폐

자료 :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US IT

주1 : HS코드는 미국의 HS코드(2011년) 8단위 기준

주2 : 품명 및 분류는 기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주3 : 양허기간의 *표시는 한미 FTA 협정문 발표 이후 HS코드가 변경된 것으로 확정 고시가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양허 스케줄에 대해 연구에 용이하도록 판단하여 명시

주4 : 음영은 관세 철폐 효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품목

○ 전북의 경우 수출 전략품목에서 기타농산가공품(과실, 견과 등의 조제 또는 저장품), 고추장, 된장, 및 기타 소스류, 주류(막걸리 등), 기타 조제식품 등이 주요 대미 수출 전략 품목으로 볼수 있음.

○ 또한 전북의 대미 수출 유망품목으로는 고춧가루 등, 버섯류, 김치 등, 주류(발효주 등)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

제3절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농림수산식품부, 2011)

1.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1) 식품 R&D를 확대하고 연구·수출지향적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17년까지 선진국 대비 85%수준으로 식품기술 향상.
- '20년까지 R&D 규모를 식품제조업 매출액 3%로 확대(민간 포함).
- 정부투자(안) : ('09)1,040억원 → ('17)4,063억원 → ('20)5,490억원.
- 식품소재·식품가공 등 18개 핵심 기술을 우선 개발.
- '15년까지 전북 익산에 수출 지향적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기능성평가·품질안전·패키징 센터 등 3대 R&D 센터 및 150여개 기업·연구소 유치(매출 4조, 고용 22천명 효과).
- 농어업-식품, 벤처·중소기업-대기업간 동반성장 체계 구축.
- 일정 : 국가산업단지 지정·착공('12) → 단지 조성('13-'14) 및 입주('15~).

(2) 식품 인력양성 시스템 확충 및 통계·정보 관리 강화

- '17년까지 식품인력 10만명 교육 실시('10년 2,100명).
- 식품인력 양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전문 양성기관 지정.
- '09년부터 식품진흥 관련 교육이 시작되었으나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
- aT 농식품유통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민간 위탁기관 등이 기관별 목표 설정.
- 수요자 중심의 통계 확충, 미래 유망분야 통계·정보조사 강화
- 업체의 원료소비 실태, 시장규모·경쟁현황, 외식업 통계 정보구축 등 추진

(3) 민간투자 활성화 및 농수산식품기업 One-Stop 서비스 지원

- '17년까지 식품 모태펀드 투자를 최대 4,000억으로 확대('10, 250억).
- ('10) 1개 투자조합 250억(정부출자 40%) → ('11) 2개, 360억 이상→ ('17까지) 19개, 최대 총 4,025억원 목표(정부출자 총 1,610억).
- 신성장동력 육성 펀드(3조 736억원)가 식품분야에 투자되도록 고부가 식품산업 범위를 설정하고, 식품기업의 코스닥 상장 적극 유도.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를 신설, 상담·수출·마케팅 One-Stop 지원.
- '17년까지 매출액 100억 기업 2,000개 육성('10, 946개소).
- 애로접수·상담 → 기업진단 → 경영·기술 컨설팅, 자금, R&D 등 연계.
- 해외 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대상국 시장현황과 전망, 검역정보, 현지 식품기업·유통업체 정보 수집 및 전파.

(4) 원활한 원료조달을 위해 자급률 상향 및 해외곡물 조달시스템 구축

- 논에 타작물 재배 장려 등, 식량자급률 확대('10: 54.9% → '20: 60%).
- 쌀, 맥류, 콩, 옥수수, 서류, 잡곡 등 식용 양곡 대상.
- '20년까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 138만톤(연간 수입량의 10%)을 생산할 수 있는 해외농장(38만ha, 동남아)을 개발.
- 옥수수 18만ha(86만톤), 밀 14만ha(39만톤), 콩 6만ha(13만톤).
- '15년까지 400만톤(연간 수입량의 30%), '20년까지 505만톤의 곡물을 도입할 수 있는 해외 곡물회사 설립('11년 미국법인, 추후 확대).

2.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1) 지역 특화품목을 산업화하고, 농어업과 중소기업 융합 추진

- '17년까지 매출액 500억원 이상 지역전략식품사업단 100개소 육성.
- 사업단의 주식회사 전환 유도 및 농공단지 등과 연계시 가점 부여.
- '05년부터 지역 특산품을 산업화한 54개 사업단 지원(평균 매출액 '10년 340억).
- 매출액 50억원 농공상 융합형 기업을 '17년까지 300개소 육성.
- 관계부처 합동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 운영.

(2) 가공산업 육성 및 사이버거래소 활성화로 국산 식재료 소비촉진

- 육가공, 유가공, 수산물, 곡물, 인삼, 채소분야 가공산업 활성화.
- 생산·판매를 일괄 유통하는 대형패커 육성 및 신제품 개발 지원.
- 산지가공시설 확대,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육성.
- '17년까지 사이버 식재료 거래량 1조원 달성('10년 1,000억원).
- '15년까지 20개 '우수 외식업 지구'지정 및 외식산업진흥법령 정비.

(3) 가공플랜트 확충으로 농어업인의 1사기업 창업 지원

- 농식품 가공 플랜트 설치 : ('10년) 4개소 → ('17) 100.
- 지역특성에 맞는 4~5가지 품목가공.
- 예시(횡성)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가 스스로 가공·포장 판매하도록 가공 플랜트 지원, 야채차 등 5품목 생산.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농식품 수출확대 및 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 '17년까지 농식품 수출 200억 달러 추진('10년도 59억달러).
- 수출 전략품목(20여개)을 선정하고 교포시장에서 현지인 시장으로 전환.
- 품목별 수출협의회 활성화, 물류비 절감 등 수출 지원체계 확충.
- 글로벌 수준의 기업육성을 위해 현지 생산·유통 거점 구축 지원.
- 식품기업 원료 확보·해외진출과 ODA사업을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
- 한국식품의 우수성 광고·홍보 및 상표등록 등 지원 병행.

(2)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식세계화 역량 집중

- '17년까지 해외 한식당 2만여개 육성('10년도 1만여개).
- “해외 한식당 협의체”육성, 맞춤형 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 전략 지역 : 미국, 동아시아, 5대 전략 품목(안) : 비빔밥, 불고기, 잡채, 갈

비빔, 전.

○ “한식조리특성화 학교” 운영, 스타쉐프 육성 등 한식세계화 기반 확충.

(3) 전통발효 식품을 산업화하고 기능성 식품을 4조원 시장으로 육성('10, 2조)

○ 김치·막걸리·천일염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기능성 식품 과학화·제품화.

김치 산업화	우리 술 고급화	천일염 산업화	기능성 식품
발효조절·품질개선 맛 표준화 생산공정 매뉴얼화	막걸리 국산 쌀 사용 비율을 '17년까지 50%확대('10년 33%)	생산시설 현대화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우수성 규명 연구	동물·인체시험 지원 확대 종합정보 DB 구축 성분 기준 규격화 지원

4.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1) 소비자 정보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 강화

- 소비자·생산자·전문가·업계·언론·정부 소통망 구축(기준: 소비자·정부).
- 소비자단체 주관 도축장 위생 점검 강화(위생감시원 : 23천명) 및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17년까지 녹색 식생활 실천율 60% 확보('09, 10%).
- 정부·민간의 역할분담으로 범국민 운동 활성화 적극전개.
- 가정·학교·지역에서 식생활 교육 강화(식생활 수첩 배부, 체험공간 등 운영).
- 성별, 연령별 영양섭취 기준에 적합한 식단 개발 보급.

(2) 유사 인증제를 '13년까지 8종으로 통폐합('10년 18종)

- 인증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수산물 인증제 우선 통합.
- 관련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공통 인증로고 도입('12.1)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3) '농어장에서 식탁까지' 사전 안전관리 시스템 확대

- GAP 시설·인증농가를 '15년까지 총 생산량의 10%로 확대('10년 3%).
- 수입 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정밀검사, 원산지 검사 강화).
-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 적합률 유지(97~98%).
- 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돼지고기 이력제 '14년 본격 시행.

제4절 한미 FTA에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1. 식품가공산업의 국제 경제력 제고를 위한 방향

1)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의 식품 안전성 보장.

-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국내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소비자 선택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함.
- 이와 함께 식품표시제도 개선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원료 수입창구의 다원화를 통해 식품업계의 원료조달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국 소비자와 식품산업, 가공유통기술, 식품농업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수집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임.
- 식품안전성 관리가 식품산업의 대안이라 볼 수 있음.

2) 국산원료 농산물의 가격 상승과 수급불안 해소방안 강구.

- 한미 FTA가 전체 식품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보면 관세인하로 인해 원료 조달가격이 인하될 것임. 이는 식품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지만 농업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로 식품산업의 국내외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국내 가격을 상당 부분 하향 조정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우수한 식품기업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는 반대로 국내 식품산업의 체질 개선 등 경쟁력 강화로 국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음.

3) 경영 및 마케팅 능력 부족 개선과 발전제약 요인 극복.

- 국내 식품산업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식품산업은 연 매출액 4200억달러(약 400조원)로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로 인해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미국은 다양한 인종, 지역, 소득 분포를 가진 사회이기 때문에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시장구조, 식품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임.

4) 신제품 개발, R&D 투자확대로 제품의 고급화·다양화·편의화 도모.

- 미국기업과의 합병이나 직접투자 등을 통한 적극적인 방법도 고려되어야 함.
- 이와 함께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기술이전에 따른 국내 식품의 고급화에도 기여할 것임.

5) CODEX규격 확대화, 웰빙 트렌드 활용 등 다양한 연구와 노력 필요.

- 지금까지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미국시장 진출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었지만 FTA 체결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임.
- 특히 미국시장에서 최근 김치, 비빔밥 등 우리 식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업계는 대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과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획득이 필요함. 특히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및 기술투자는 필수적이고, 엄격한 경영윤리와 엄정한 생산유통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식품유통기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확립하는 노력도 필요함.

2.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수출지원 전략

1) 식품가공산업 수출기업 지원전략

(1) 시장진출 지원전략

- 제품의 품질을 강화하여 현재 시장에서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타제품 사용고객 및 잠재고객으로 하여금 제품이나 브랜드의 스위칭을 유도하고 이용하게 하면서 기존 고객이 더욱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제공
 - 시장동향 및 기술동향 정보제공 사업
 - 마케팅컨설팅 지원사업
 - 마케팅프로모션 지원사업
 - 기술 및 시장정보 제공
 - 해외시장개척 지원서비스

(2) 제품개발 지원전략

- 확보된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제품계열을 확장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술혁신 시장을 발굴토록 함
 - 제품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R&D 지원서비스
 - 제품계열확장에 따른 R&D 지원서비스
 - 품질인증 및 규격인증 지원서비스
 - 제품의 상용화 지원 서비스
 - 기술가치 및 특허 지원 서비스
 - 기술동향 및 경쟁기술정보 지원 서비스
 -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 서비스

(3) 시장개발 지원전략

- 현재 생산되는 제품으로 새로운 세분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치열한 경쟁 시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제품의 유통망을 넓히고 시장 규모 확대를 지원함
 - 해외무역 및 통상지원 서비스
 - 해외시장정보 및 동향정보 서비스
 - 브랜드 활성화와 공격적 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
 - 마케팅컨설팅 지원 서비스
 - 해외무역 및 통상 인력양성교육 지원서비스

2)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수출지원 주요 정책방안

(1) 식품가공산업 관련 수출활용매뉴얼작성 및 수출코디네이터 양성

- 국가별, 경제권역별 식품가공산업 수출정보 및 프로세스,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제공.
- 식품가공산업 수출지원 전문가 그룹 및 대학과 연계한 ‘기업지원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 실시.
- 대학과 연계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을 지역의 수출기업지원 전문인력으로 활용.

※ 코디네이터(Coordinator): 중개자로서 애로기술해결을 포함하여 대학이나 독립 행정법인 연구기관, 공설 시험연구기관 등의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발굴하여 상품화할 때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인재, 또는 그 연구 성과를 기초로 벤처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경영 지원을 하는 인재

(2) 지식재산권 해외출원 및 등록 컨설팅

- 정부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해외 진출 포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이러한 정보에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정보를 보다 활발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의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술수출 : 특허·상표·기술서비스 등의 해외 판매·라이센싱 및 외국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등.

- 지식경제부는 이를 위하여 기존 기술라이센싱 중심의 기술수출 마케팅지원사업을 해외 지역별로 특화하여 맞춤형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함.
- 최근 기술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기술거래기관과 법률·회계·투자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GCC)”를 지정하고, 우수기술 100여건을 선정하여 건당 최대 20백만원(기존 5백만원) 한도 내에서 기술수출과 관련된 시장조사, 법률·투자 자문,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시장진입이 힘든 기술선진국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 우수 경영대학의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GAP, Global Access Program)을 통해 국내 기업의 미국 기술시장 진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함.
- 따라서, 기술지원서비스 기관이 직접 지재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함.

(3)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시설장비 지원

- 식품제조업체 및 식재료가공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식품가공업체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토록 함.
- 지원대상(예시): 식품제조업체 및 식재료가공 농업법인 신청가능. 다만,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하며, 식품제조업은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4)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청은 수출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중임.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은 FTA 체결에 따른 효과 극대화를 위해 2011년 이후 발효된 EU와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실시할 예정임.
- FTA 수출 유망품목은 기존 수출액이 일정규모(1,000만불) 이상인 품목의 지속적인 수출과 관세혜택 등으로 향후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의 수출활동 촉진을 위하여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562개 품목을 선별하였음.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kotra, 은행 등 23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주요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 kotra 등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참가 시 가점부여, 자금 및 보증 우선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참여우대 등 86개 항목에서 우대 지원함.
- 신청자격은 FTA 유망품목을 제조·수출하거나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

인 중소기업임.

- 이와 관련하여 식품가공산업 분야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 차원에서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 능력 및 재무평가 등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하면 수출유망 식품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제 5 장



연구종합 및 제언

- 제 1 절 연구종합
- 제 2 절 정책 제언

제 5 장 연구종합 및 정책 제언

제 1 절 연구종합

-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결과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높은 식품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과 육성 방안에 대해 선제적 검토를 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음.
- FTA(Free Trade Agreement)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임.
- 상대국이 부당한 무역조치를 취할 때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호혜적인 교역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 2011년 현재 한국은 45개국과 8건의 FTA 발효,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 진행, 17개국과 10건의 FTA 협상 준비 및 공동 연구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규모는 2010년 기준 8,915억 달러로 세계 9위에 있으며, 향후 FTA는 당사국 간에 무역장벽을 철폐해 무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비중이 85%에 달하는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EFTA, EU, 미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또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GCC와는 협상 중에 있음.

- 특히 최근 FTA가 발효된 EU는 27개국 5억여 명의 소비자, GDP 규모 16조 달러(2010년 기준)의 거대한 시장이며, 미국은 GDP 규모 15조 달러(2010년 기준)의 세계 1위 경제대국임. 즉, 우리나라는 세계 50%의 경제규모(EU, 미국)를 가진 국가와의 FTA로 인하여 세계 2, 3위의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관계에서 선점을 차지하였음.

<표 5-1> 2011년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발효 (8건, 45개국)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27개국), 페루, 미국
협상진행 (7건, 12개국)	캐나다, GCC(6개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10건, 17개국)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6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자료: 외교통상부(www.fta.go.kr)

-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미국과 함께 G2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를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FTA를 활용한 기회의 선점 및 편승을 통해 FTA 허브국가로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식품가공산업도 원재료 수입가격 하락과 수출품의 관세인하 등으로 영향이 예상됨.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경우, FTA에 따른 원재료 수입가격 인하에 따라 식품가공산업의 경우 1차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에 있어서도 관세인하에 따른 2차적 가격경쟁력을 확보 가능함.
- 반면에 다양한 외국의 가공식품들이 국내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지면서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전북의 먹을거리와 이를 이용한 식품가

공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해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인 식품산업, 그 중에서도 식품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FTA에 대응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함.
-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음.
-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91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많은 수(120)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음.
- 세계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구 사회주의 경제권의 시장경제에의 통합, WTO 다자간협상에 의한 국제적 규범의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지역주의 확산 등을 통하여 빠르게 개방되고 글로벌화 되고 있음.
-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4월 협상타결 및 6월 공식 서명 이후 양국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다가 2010년 12월 추가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
-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미국과의 FTA는 시장개방 수준에서도 단순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전분야에 걸쳐 포괄적임.
-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의 다른 FTA와 비교해 크게 미칠 것 이며, 따라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차원에서도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임.
- 전북의 식품산업 비중은 전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전국의 식품산업(식료품, 음료, 담배)에서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은 전

체 제조업중 약 7.2%와 6.8%를 차지하는 반면, 전북의 경우 17.2%와 17.1%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 제조업 사업체수는 지난 11년간 약 2.3% 증가(식품산업은 3.7% 증가)
- 전라북도 제조업 종사자수는 지난 11년간 1.2% 증가(식품산업의 경우는 동기간 2.8% 증가).
- 지난 11년간 전라북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5.4% 증가(식품산업은 동기간 3.0% 증가)
- 정부는 세계 식품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북 익산에 조성하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식품시장으로의 수출지향형 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와 국책 농식품 R&D 기관들을 연계하여 식품가공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새만금 등 주변 인프라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게 될 것임
- 종합하면 전북은 전체 제조업에서 식품가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식품가공산업 분야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한미 FTA를 통해 수출증대 및 R&D에 있어 지역차원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존 농수산물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확대 가능성을 가진다고 예상할 수 있음
- 전라북도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협정대상 식품산업의 총 수출액은 2011년

약 12백만불이며, 2002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14.1% 증가하였음. 구체적으로 감소품목은 10류(-66.3%), 17류(-25.1%), 12류(-8.4%), 11류(-2.8%)임.

- 전체 식품제품에 대한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2011년 기준), 21류(33.0%), 19류(27.2%), 22류(24.3%), 20류(11.4%)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그 외 품목에서는 약 1% 미만의 비중을 보임.
-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22류(-14.4%), 21류(-11.1%), 13류(-0.5%), 12류(-0.4%), 11류(-0.2%), 07류(-0.1%)의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협정대상 식품산업의 총 수입액은 2011년 약 378백만불이며, 2002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53.8% 증가하였음
- 품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13류(-98.9%), 11류(-60.9%), 22류(-45.1%), 15류(-41.6%), 20류(-13.0%), 06류(-11.7%), 17류(-0.9%)의 순으로 감소 특히 05류, 14류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증가품목의 경우는 18류(197.2%), 19류(125.1%), 02류(111.9%)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협정대상 전체 식품제품에 대한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2011년 기준), 10류(74.1%), 23류(11.0%)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외 02류(9.3%)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는 1%미만의 비중을 보임.
- 비중차를 살펴보면, 12류(-25.9%p), 01류(-11.5%p), 07류 및 17류(-5.3%p), 15류(-3.1%p), 08류(-3.0%p), 05류(-0.4%p), 20류(-0.1%p)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미 수출비중이 취약한 전북의 경우, 식품가공산업에 있어 기존 자료에 따른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한미 FTA에 따른 관세혜택으로 인해 식품가공기업의 경우 원료수입가격 인하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북 식품가공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결과, 대미 무역특화지수(TSI)는

0.21로 수출특화 상태지만,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0.15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미국보다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수출경쟁력 지수로 전북의 식품가공산업은 향후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란 의미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함. 따라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전북 식품가공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화와 기술경쟁력 확보 없이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임
- 앞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전북 식품가공산업의 SWOT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강 점	단 점
청정환경 국내 전통식품 경쟁력 발효식품 등 관련 품목 다양 한국 식품에 대한 호의적 인식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한 낮은 가격경쟁력 체계적인 수출 및 R&D 투자전략 미흡 원자재 가격 상승 많은 영세중소기업 낮은 식품가공산업 인지도
기 회	위 기
재미 한인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 한류 확산에 따른 이미지 제고 LOHAS에 걸맞는 한국의 식문화 고품질 식품 수요 증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미국 가공식품의 품질 경쟁력 및 인지도 수입선의 다변화 낮은 정보화(정보 접근성) 각종 인증비용 등으로 수출비용 상승 원료수급의 불안정

- KITA(2011)의 대미 수출 전략품목 및 유망품목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수출 전략품목에서 기타농산가공품(과실, 견과 등의 조제 또는 저장품), 고추장, 된장, 및 기타 소스류, 주류(막걸리 등), 기타 조제식품 등이 주요 대미 수출 전략 품목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전북의 대미 수출 유망품목으로는 고춧가루 등, 버섯류, 김치 등, 주류(발효주 등)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
- 전북 식품가공산업의 수출입구조와 기존 선행 연구의 사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2011) 그리고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1)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의 식품 안전성 보장, 2) 국산원료 농산물의 가격 상승과 수급불안 해소방안 강구, 3) 경영 및 마케팅 능력 부족 개선과 발전제약 요인 극복, 4) 신제품 개발, R&D 투자확대로 제품의 고급화·다양화·편의화 도모, 5) CODEX규격 확대화, 웰빙 트렌드 활용 등 다양한 연구와 노력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이와 함께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수출기업 지원전략으로 1) 시장진출 지원전략, 2) 제품개발 지원전략, 3) 시장개발 지원전략 등을 제시하였음
- 또한 전라북도 식품가공산업 수출지원 주요 정책방안으로 1) 식품가공 산업 관련 수출활용매뉴얼작성 및 수출코디네이터 양성, 2) 지식재산권 해외출원 및 등록 컨설팅, 3)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시설장비 지원, 4)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음

제 2 절 정책 제언

1. 전북 식품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기본적으로 전북지역 식품가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주체의 경영안정,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기 구축 및 활성화,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한식의 세계화 및 수출확대 정책 등 정책적인 노력 필요.
- 전북 식품가공산업의 문제점으로는 판매부진, 농산물 원자재 가격 불안정, 원재료 조달체계 미비, 노후화된 설비,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판매촉진을 위한 품목별 조직화와 가공 및 지역 유통회사 육성, 지역가공 농산물 가공원료에 대한 부가가치 세 면세, 노후설비 현대화를 위한 장기저리 융자지원, 가공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시스템 강화 등 필요
- 지역차원에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소규모 영세 식품가공업체들의 경쟁력을 확보를 통해 상생을 위해 전북 식품가공기업 협동조합 구성이 추진되어 미국의 거대 식품기업들과의 경쟁에 대응해야 함
- 식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산학연간 공동연구 체계 구축, 선진 기술국과의 전략적 기술제휴

2. 한미 FTA 대응 전북 식품가공산업 육성 세부추진 전략

- 수출전략품목 개발과 육성
 - 전북의 취약한 식품가공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위주로 우선 육성하는 등 선택적 집중투자 (시장성과 기술력이 있는 유망분야 및 제품에 대한 선택적 지원) 필요

-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R&D 투자 확대 지원 및 정부지원 식품분야 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 개발된 제품의 국제규격화를 통한 수출조건 충족

○ 계층별, 인종별,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통한 시장확대 전략 추진

- 미국은 다양성을 국가 기반이라 할 만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임.
- 이를 바탕으로 우선 한국 식문화 전파를 중심으로 계층별 소비수준에 맞추어 한국 브랜드 현지화로 고품질 저가격 이미지로 소비층 확보
- 또한 고소득계층에 대한 전략적 판매를 위해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백화점 등 고급매장에 대한 유통경로 확보 필요
- 인종, 종교 등 미국내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차별화된 형태의 맞춤형 가공식품을 통한 시장확대 전략 마련 필요
- 식재료 선택이 까다로운 이슬람 및 유대 민족과 관련된 식품 인증을 통해 틈새시장 및 수출 확대
- 미국시장을 발판으로 인접 중남미 거대 시장인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시장을 확대 가능
- 전략적 해외 생산판매 개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재미 한민족 네트워크 활용

- 미국내에서 약 200만명에 달하는 재미교포들은 주로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미국 식품시장 진출에 이러한 재미 한민족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미국내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한국인들 위주로 이용되었던 한인마트에 외국인 이용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미국인들에게 생소하지만 상대적으로 재미교포를 중심으로 인지도가 높은

전북의 전통음식 및 발효식품 등 가공식품의 미국시장 개척을 위해 한인마켓에 공급 품목 및 규모 확대를 통해 점차 인지도를 넓혀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 필요

○ 충분한 유통망 확보 및 포장 개선

- 한미 FTA 발효로 인해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의 미국시장 진출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임. 따라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국내 유통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전북 가공식품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포장 형태로 개선 및 고급화
- 전라북도의 전통식품을 중심으로 국제적 상품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지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 또는 제품 브랜드 개발

○ 한국 전통문화와 연계한 마케팅 활용

- 드라마 또는 영화, 음악 등 한류열풍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 이를 위하여 방송 및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간접광고(PPL) 등 전북 가공식품과 직접 연관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 현지투자를 통한 간접수출 확대

- 전통식품 등 식품가공방식을 활용하여 제품의 신선도 및 현지화 측면에서 현지투자를 통한 간접수출 확대 방안 모색

○ 수출과 투자정보 지원체계 및 홍보방식 개선

-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지역차원의 추진기구를 발족 필요(가칭, 전북식품가공산업 협의회)
- 검역, 검사 등 수출관련 업무의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
-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확인 강화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지원제도 마련 및 도내 식품안전 관련 기관 설립 추진(전북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강화 차원)

- 글로벌 홍보 방식에 있어 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행사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행사 적극 활용
- 유통 및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식품공동물류센터의 설립 및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가공식품의 경우 냉장 등과 같이 보관 및 운송 방식이 일반 재화와 차이가 큼)

○ FTA 허브로서의 이점 적극 활용

- 기존 FTA와 연계 등 FTA 허브로서의 다른 국가 및 경제권과의 경제 및 산업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 원료 수입 및 제품 수출을 위한 지역내 글로벌 식품가공기지 조성
- 기타 FTA를 활용한 식품가공산업 구조고도화 기반 강화 및 인재 육성 등 필요

3.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전라북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식품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의 규모는 세계수준에 비해 취약하고 시제로 가능성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전라북도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내 인지도에 비해 세계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내 식품기업에 대한 Supply-Chain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와 함께 식품산업 관련 통계도 기관별로 혼재되어 있거나 미미하여 다양한 분석적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짐.

참 고 문 헌

- 김정곤·김균태(2011),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외(2010),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KOTRA(2011), 한미 FTA로 날개 달 중소기업 35대 수출유망상품.
- 김양중(2011), FTA 7년의 성과와 향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 정영원(2011), OECD 국가들 식품산업의 무역구조 분석
- 정귀수외(2010), 한미 FTA 추가 협상 체결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과 시사점, 하나산업정보.
- 문창진(2006), 주요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적와 식품산업 대응방안. 식품산업.
- 김도훈(2011), 한미 FTA와 서울시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
- 송성완(2007), 한미 FTA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발연 2012

한미 FTA 대응 전라북도 산업별 연구
- 식품가공산업 -

발행인 | 김경섭

발행일 | 2012년 4월 30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063)280-7100 팩스:(063)286-9206

ISBN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